第305回國會
(臨時會)

國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12年2月14日(火)

場 所 國會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국무위원후보자(특임장관 고흥길) 인사청문회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안
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審査된案件

1. 국무위원후보자(특임장관 고흥길) 인사청문회 ····· 2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36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36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36
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36
5.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 36
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송민순・김동철・김재윤・최철국・노영민・양승조・주승용・강기정・장세환 의원 발의)(계속) ····· 36
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박은수・강창일・백원우・전현희・최영희・김우남・홍재형・이석현・최재성・최규식・최문순 의원 발의)(계속) ····· 36
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정희・조승수・김우남・유원일・유성엽・박선숙・신학용・곽정숙・홍희덕・권영길・김재윤・강기갑 의원 발의) ····· 36
1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김춘진・박은수・양승조・장세환・송민순・김영진・김우남・이윤석・이정희・김성순・송영길・김성곤・김상희・우제창・유성엽・김진표・이시종・이용삼・안효대・홍희덕・김재윤 의원 발의)(계속) ····· 36
1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권택기・유성엽・조경태・김부겸・김재윤・김성수・김춘진・박순자・김충조・김정훈・황우여・박선영・김영진・송민순・이미경・김금래 의원 발의) ····· 36

1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 의원 대표발의)(윤영・정희수・윤석용・이화수・허천・노철래・강길부・김성수・손숙미・성윤환 의원 발의) ····· 36
1. 국무위원후보자(특임장관 고흥길) 인사청문회(계속) ····· 38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황우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입법조사관의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1. 국무위원후보자(특임장관 고흥길) 인사청문회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특임장관 고흥길)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함에 앞서 국무위원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오늘 특임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이 요청된 특임장관후보자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와 당・정・청, 여야 그리고 시민단체 간의 소통업무를 소관사항으로 하는 특임장관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임감 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검증과 확인을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와 같은 인사청문회의 취지와 중요성을 감안하시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실 것과 특임장관후보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오늘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불필요한 인신공격이나 정치공세가 아닌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의 목적에 충실한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의 협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후 각 위원별로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 실시와 관련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흥길 특임장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고흥길 특임장관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2년 2월 14일

공직후보자 고흥길

○위원장 황우여 다음으로 인사청문회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고흥길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께서는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 그리고 청문위원 여러분!

특임장관후보자로 지명된 고흥길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이 중요한 시기에 중책이 주어져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어깨가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후 사회의 그늘과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자 언론인이 되어 현장을 누비며 30여 년간 언론계에서 종사하면서 열정을 바쳤습니다.

그후 정치권에 입문해 16대 국회부터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실천하고 또 제 스스로 겸손하게 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행복한 사회, 불의가 없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의 지원과 배려 때문에 한나라당의 제1사무부총장, 홍보위원장, 중앙위의장 권한대행, 정책위의장 등 당의 여러 주요 보직을 맡아 당무와 정책을 두루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저를 특임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바로 이러한 언론인과 정치인의 경험과 지혜를 십분 발휘해 소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여 남은 임기 동안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국가에 봉사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 그리고 청문위원 여러분!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고뇌의 시간을 보냈던 것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시절이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시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도 첨예하였습니다.

저는 타협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설득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결국 국회법 절차에 따라 문방위에 상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 그리고 청문위원 여러분!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사회 양극화 문제,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신성장 동력 확충, 공생 발전, 북핵 문제 등은 어느 하나 쉽지 않은 과제들입니다. 이러한 당면 과제들과 민생을 해결하고 한반도 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화합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오늘의 여야 대치를 불러온 요인이 단순한 정책적 입장 차이뿐 아니라 대화와 타협에 인색한 정치문화, 양보를 패배로 인식하는 정치관행, 극한 대립을 야기하는 정치제도의 결함,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임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국민의 화합을 위해서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보다 나아지고 정치가 선진 일류국가를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 그리고 청문위원 여러분!

특임장관실이 신설된 지 이제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신설조직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전임 장관들께서 최선을 다해 조직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전임자의 성과를 토대로 특임장관실이 본연의 역할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저 자신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특임을 수행하는 장관인 만큼 대통령을 잘 보좌해 5년 임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국회에 계류된 법안 중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중점 법안들이 18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여야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 그리고 청문위원 여러분!

논어에 견리사의(見利思義)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보면 의로움, 정의를 먼저 생각하라는 뜻인데 저는 이 경구를 항상 가슴에 새기며 무엇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 옳은 일인지 고민하며 정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미래와 국익을 바라보고 어려운 결정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저에게 있어 저의 인생을 정리하고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한 치의 가감 없이 제가 살아온 여정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모든 지적을 가슴에 새기고 성실히 국정을 수행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끔한 질책과 국정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제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직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의사진행발언이요?

○김재윤 위원 예.

○위원장 황우여 질의 시작하자마자 드릴게요. 잠깐만요.

다음은 특임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7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가 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하시고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시간을 꼭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계속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우리 김재윤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고흥길 특임장관후보자 인사청문에 앞서서 고흥길 특임장관후보자는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인사청문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흥길 후보자께서는 언론악법 날치기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국회를 불통국회로 만드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에 앞장선 분입니다. 언론악법을 날치기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저는 특임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임장관은 여야 간의 소통을 담당하는 장관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아픈 곳이 어딘지를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장관입니다. 그런데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에 대해서 일언반구 없이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임장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면 인사청문회 청문에 앞서서 마땅히 국민 앞에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소통하는 국회 또 국민과 소통하는 특임장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고흥길 특임장관후보자에게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취지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신 것으로 선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질의하는 가운데에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질의가 나올 겁니다.

○김재윤 위원 지금 한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사청문회가, 우리 야당도, 지금 날치기 처리에 대해서 오늘 인사청문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장관후보자가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황우여 알겠습니다. 간사들과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

여야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 계실 때에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야당의 위원님들께서 아마 집중 이야기를 하실 테니까 질의 과정 중에서 적절할 때에 본인의 심경과 또 소회를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모두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질의의 맥이 끊어질까 봐 여야 간사들께서 그렇게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김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고 계시다가 적절할 때 표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박영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英娥 委員 송파갑 출신 박영아 위원입니다.

먼저 특임장관에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30년간 언론계의 경험과 또 12년간 의정활동의 경륜과 식견을 토대로 해서 국회와 정부 또 여야 정당 간 또 시민단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 국정 운영이 원활하게 되어서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1년 동안 좋은 성과를 내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지난 12년간 정치활동을 해 오셨는데요 평소 정치적 소신은 무엇입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죄송합니다. 마지막 말씀이……

○朴英娥 委員 안 들립니까? 평소 가지고 계신 정치적 소신은 무엇입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저는 정치에 입문을 한 게 1997년도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때 입문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언론계에서 한 30년 있다 보니까 사실상 언론계에서 더 이상 기여하는 것보다는 정치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는 생각에서 했고 그 이후로 저의 소신은 일관되게 우리나라 정치의 선진화,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미력한 힘이나마 쏟아보겠다는 그러한 일념으로 여태까지 정치를 해왔습니다.

○朴英娥 委員 지금 이렇게 18대 국회의 마지막 즈음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특임장관에 지명을

받고 수락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특히 언론계의 경험을 되살려 가지고 우리 현재 국민과 정부 그리고 국회와 국민과의 소통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많이 지적되고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을 어떻게 하실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지금 박 위원님의 말씀과 똑같이 우리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잘못된 일로 지적되는 게 소통의 부재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임장관으로서 정부와 국회 특히 여야와 사회단체 등에 대한 소통 문제를 위해 제가 가장 우선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제부터 소통합시다' 한다고 얘기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꾸준히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대화를 해 나가는 중에 소통이 열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英娥 委員 그런데 실제 지난 3년간 특임장관실에서 소통을 위해서 노력한 실적을 보면 상당히 미흡합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소통간담회를 1회 하고 또 정책간담협의회를 2회 하고 해서 총 3회에 불과한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특임장관실의 어떤 업무 영역이랄까 역할이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의 정무장관 역할과 함께 어떤 국책사업에 대한 업무까지 포함되어 있고 또 대통령 지시사항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업무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임장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보면 또 논란을 제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총선과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임장관의 소신도 그렇고 또 특임장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 각 소통의 주체가 되는 정부·국회·정당 간의 소통도 강화해야 되고 갈등을 좀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든 선거 국면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갈등이 오히려 격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갈등을 조정하고 또 시민단체를 설득하고 또 지금 국회에는 논란이 되는 여러 가지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2월 국회에서 처리되거나 또는 다음 4·5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약사법 개정안도 있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저축은행특별법 등이 지금 국민의 시각과 또 각 지역 의원이나 해당 당사자의 관점에서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특임장관으로서 역할을 하실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지금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바로 특임장관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이고 또 앞으로 해야 할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조직법 제17조상에 보면 특임장관의 역할이 딱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 역할의 범위를 벗어나는 활동을 할 때는 또 거기에 따른 잡음이라든가 부작용, 지적이나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정식으로 취임하게 되면 저희 특임장관실의 참모들 또 과거에 특임장관을 하셨던 분들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적절히 어떻게 특임장관으로서 국정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고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가를 방향을 찾아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英娥 委員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핵심 화두가 사회적 통합이고 앞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 그리고 또 세계를 선도하는 일등국가, 국민이 행복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통합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임장관이 되시면 소통의 역할 충분히 하셔서 우리 국가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개인적인 건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신 후에 지역에 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는 가천학원의 법인이사를 맡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지금 가천학원의 법인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朴英娥 委員 그런데 가천학원이 물론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대학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견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천학원의 법인이사를 맡으신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히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처음에 2001년도에 가천학원 측으로부터 이사직을 맡아 달라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바로 성남시에 위치한 대학이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산·학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서 맡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맡았고요. 그래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맡다가 또 사학법이 개정되고 해서 제가 중간에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었다가 다시 또 2009년도에 좀더 맡아 달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도 맡고 있습니다. 임기가 금년 3월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英娥 委員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존경하는 박영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민주당의 안규백입니다.

고흥길 후보께서는 2009년 언론악법 정국에서 문광위원장을 맡아서 날치기 정국을 주도해 국민들로부터 당시에 언론오적, 조중동 방송 오적이라는 이런 비난을 받아오신 인물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2010년 영포, 2010년 형님예산의 날치기 통과 후에 책임을 지고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정국 파행의 길목에서 항상 핵심으로 꼭 계셨는데 일견 당시에는 공공의 적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본인의 성품과 인품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평가를 받으신 분이 이 중차대한 시기에, 금년에 두 번의 큰 선거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에 특임장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본인이 이 특임장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아까 회의 벽두에 우리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 위원님께서도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제가 정치에 들어와 가지고 아직까지도 제 가슴에 남는 일은 2009년에 있었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방송법 전격 상정이었습니다. 처리라고 하셨는데 방송법을 처리한 것은 아니고 상정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게 정상적인 상정절차를 밟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의 상황이 워낙 여야 간에 대립이 첨예했고 또 시기적으로도 무한정 늦출 수도 없었고 저의 생각에는 우선 상정이 되어야지만 여야 간에 대화가 되고 진전, 토론이 될 수가 있겠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소신을 가지고 단독으로 제가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 상정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언론·방송 발전을 위한 국민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100일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야 간에 방송법의 문제점에 대한 토의·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거기에서부터 단초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송법이 개인이나 또는 어떤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당시에 미디어산업의 선진화 그리고 국민 편익의 증진이라는 두 가지 뚜렷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규백 위원 지금 후보자께서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2009년 당시에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게 적법하고 합법하다고 그렇게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당시의 강행 처리가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강행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나 그게 불법이라든가 탈법이라든가 이렇지 않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고 그러한 방법을 통하지 않고 여야 간에 합의에 의해서 상정이 됐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협의에 의해서 또는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상적인 수순을 밟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갖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그럴수록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조정과 통제에 인내를 가지고서 끝까지 대화로서 소통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부족했다 이런 말입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에 동감합니다.

○안규백 위원 당시에 또 후보자께서는 '통신요금을 더 비싸게 물려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정치가 국민에 대한 사랑이고 상식인데 이런 발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그것은 조금 와전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러한 뜻이 아니었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신요금을 갖다가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부담을 시키고 또 서민층이나 학생들, 조금 이용하는 학생·사람 층에 대해서는 통신요금을 깎아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고 일부가 와전된 것임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안규백 위원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2009년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 상황이나 2011년 예산 날치기 상황이 벌어진다면 위원장으로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을 또 강행하시겠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저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 간에 국회 선진화법 입법에 대해서 거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법안이 상정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숙성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상정이 되고 또 언제까지 안 되면 법사위로 넘어가고 이러한 여야 대표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제 입법절차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통과가 되면 그러한 일은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규백 위원 후보자님의 모두발언에 대해서 말이에요 모두발언 하실 때 '당시에 날치기한 것에 대해서 지금도 필요한 조치였고 불가피한, 규정에 따라서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안규백 위원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여야 간, 시민단체나 이런 데하고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고 가교 역할을 할 그런 생각이 없다, 이렇게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잘 아시겠지만 누구보다도 대화와 타협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고 또 여태까지 그것을 모토로 해서 정치를 해 온 사람입니다.

당시에 방송법을 그러한 방법이 아니고는 상정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충분한 여야 간의, 간사들 간의 협의라든가 물밑 접촉이 죽 있었음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규백 위원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여야의 소통,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특임장관 자리에 언론악법을 처리한 이런 칭호를 받으신 분을 내정한 것을 두고 2011년 예산을 날치기 처리한 이후에 정책위의장을 사퇴한 사람을 다시 내정했다, 그리고 또 이 분을 다시 특임장관에 내정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통이 목적이 아니고 내 사람 챙기기 위한 이런 목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안 기습처리 이후에 사퇴를 한 것은 기습처리가 주된 이유가 아니라 당시에 우리가 약속을 했던 불교계와의 템플스테이 예산이 누락된 데 대해서 정책위의장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질 일이다,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그래서 스스로 물러난 것이지 예산안 기습처리라든가 그런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으로 물러난 것은 아닙니다.

○안규백 위원 당시 영포라인의 예산만 챙기다 보니까 주요 서민 예산이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진 것 아니겠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포라인 예산이 어떤 것이 영포라인 예산인지도 사실 당시에는 잘 파악이 안 됐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안규백 위원님 질의 마치셨나요?

○안규백 위원 예.

○김재윤 위원 제가 잠깐만, 답변에 대해서 제가 너무……

○위원장 황우여 아주 본질의를 하시지요, 김재윤 위원님.

○김재윤 위원 제가 잠깐만……

○위원장 황우여 본질의를 하시라고요.

○김재윤 위원 잠깐만, 1분만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황우여 ……

○김재윤 위원 고흥길 특임장관후보자께서 오늘은 우황청심환을 많이 드시고 오셨나 봅니다.

미디어법 처리에 앞장선 데 대해 사과를 요청

한 것은 오늘 인사청문회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분노하고 '의회민주주의의 파괴다, 그 주역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인사청문회의 진행을 위해서라도 사과는 못 할망정 유감 표시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변명과 오히려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했다, 이것은 저는 오만의 극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국민 앞에 사과하기를 촉구드립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지금 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제가 무슨 그것이 잘했다 잘났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만해서가……

○위원장 황우여 후보자님, 말씀 중에 이렇게 되면 위원장으로서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상권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은 본질의에서, 만약에 위원장이 잘못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이상권 위원 예,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이상권 위원 지금 특임장관의 주된 업무가 당·정·청 그리고 우리 국민과의 소통 문제인데 소통 능력이 있느냐, 대화와 타협의 능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특임장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바로 그 본안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자꾸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서 '사과를 해라, 유감을 표명해라, 그렇지 않으면 의사진행이 안 된다' 이런 식의 의사진행발언은 허용해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아니, 사과할 것은 해야지요.

○이상권 위원 그러면 본질의에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지 마시고.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소통에 대해서……

○김재윤 위원 아예,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안규백 위원 소통의 능력이 있는가를 제가 질의하지 않습니까?

○이상권 위원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마시고……

○안규백 위원 아니,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이상권 위원 아니, 그것을 안규백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김재윤 위원님께서 그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물어보시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본질의에서 하십시오.

○위원장 황우여 존경하는 위원님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여유가 넉넉지 않기 때문에 7분이라는 아주 제한된 시간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우선 진행을 스물세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위해서는 가급적 본질의에서 소화하실 수 있고 녹여내실 수 있는 것은 본질의에서 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대한 의견으로 집약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뜻에 정곡을 찌르는 답변으로 의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유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一鎬 委員 유일호 위원입니다.

저도 후보자께 미디어법 관련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너무 이 문제에 우리가 하다가는 청문회가 원활히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말씀을, 오히려 본질, 업무에 더 관계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우여 위원장, 노영민 간사와 사회교대)

후보자님 기억하실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마는 지난번, 벌써 작년이 됐습니다. 4·27 재·보선 선거기간 동안에 전임 특임장관실 직원이 어느 지역 선거구의 수첩을 분실하고 이랬다가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마는.

지금 특임장관의 업무라는 것이 부득이 국회와의 의사소통 이런 것이 될 것이고 당연히 그것이 업무이고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올해 큰 선거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총선과 대선?

이 문제에 있어서, 첫째 우선 틀림없이 그런 각오를 하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선거중립 의무 이것에 대한 각오를 하나 말씀해 주시고 또 지난번, 물론 이것이 '혐의 없음'이 결정이 났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무려 세 사람이나 고발도 되고 했던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잘 하시겠다는 말씀, 그 각오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말씀 뜻을 잘 알겠습니다.

수첩사건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일상적인 업

무 수행이었다는 것이 사직당국에 의해서 밝혀졌고요. 앞으로가 문제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특임장관으로서의 본분을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수행을 할 것이고 특히 저희 특임장관실의 직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분명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임장관실이 선거에 대해서 간여를 한다거나 선거업무에 대해서 이상한, 일탈하는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저 자신이 용납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고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십분 이해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柳一鎬 委員 예, 그런 각오로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임장관실 업무, 이것이 특임장관실 자체는 물론 선례, 그전에 다른 이름으로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현재 특임장관실은 2009년 신설이 되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업무라는 것이 분명한 세부업무가 잘 나와 있지 않은데 혹시 현재의 조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것이 좀 방만한 것은 없는지?

정원이 별로 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41명 정원에 현원은 2010년도에 제일 많이 늘었다가 현재 조금 줄은 상태인데 이 정도면 적정하다, 이 정도면 특임장관실 업무를 해 나가는 데 문제가 없겠다, 혹은 과다하다 이런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지금 특임장관실의 정원을 저도 내정이 돼서 알아본 결과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특임장관의 중요한 점은 여의도 관계, 국회와의 관계가 사실 어느 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데 특임 담당국장이, 조정관이 셋이 있는데 거기의 한 조정관이 여야를 같이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야당과의 소통이 더 사실은 여당과의 소통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야당과의 소통창구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제 전임자들도 얘기를 해 왔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 정부 안에서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원이나 기구·조직 개편 이런 것은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柳一鎬 委員 결국 증원을 생각하시는 것이네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柳一鎬 委員 다들 예산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증원이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야를 균형 있게 접촉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그것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아마도 항상 특임장관직을 수행하시면서 올해 정기국회나 이렇게 되면 예산 때가 되면 특수활동비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수활동비를 어디까지 공개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특임장관실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기관도 마찬가지이지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집행내역 이것 최소화하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12억에서 14억 원 정도 매년 배정받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저는 정부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지 되고 그 집행한 결과는 공개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수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특임장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의 19개 기관에 그게 지금 다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다시 논의가 돼야지 될 문제고 특임장관실이 유독 '이것은 우리는 다 공개한다' 해서 공개를 했을 경우에 사실상 그 예산집행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을 우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전체 차원에서 논의될 사항이지 특임장관만의 어떤 생각이나 결단으로 이루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柳一鎬 委員 마지막으로 요즘 한참 우리 국정의 한 이슈랄까 논쟁의 중심에 있는 FTA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임장관실이 FTA의 주무부처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이미 정치 이슈화되어 있고 이것이 국민과의 소통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야 물론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야당 의원님들은 그에 반대하는 의사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국론이 이 문제로 상당히 분열돼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우선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소통을 시킬지, 지금 또 우리가 한중 FTA도 추진을 하겠다 하는 것이 외교통상교섭본부의 의중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한 발을 더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또 이미 통과된 한미 FTA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도 있고 국민들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열돼 있는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국민들과 소통하실 생각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저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2월 말이면 양국 간에 비준서가 교환이 돼서 발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명숙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일각에서 이것을 연기를 해야지 된다거나 재협상을 해야지 된다는 주장을 했고 그러한 뜻을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에게도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 매우 중대한 문제고 국민들 간에 사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렇게 섣부른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제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배경이 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거나 정부 측과 다시 논의할 여지는 없는지 이런 걸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FTA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柳一鎬 委員 예, 주무부처 장관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여튼 야당과의 소통에 좀더 적극 나서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 인천 부평을 출신 민주통합당 홍영표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황청심환 안 드시고 오셨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준비를 안 해 왔습니다.

○홍영표 위원 우황청심환 안 드셔도 오늘 청문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으셔서 그러신 모양입니다.

특임장관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 고흥길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날치기 직권상정의 아주 행동대장 격이셨는데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라는 것은 소통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영표 위원 바람직한 정도가 아니고…… 좋습니다. 본인이 어떤 소신, 혹은 뭐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미디어법에 가장 앞장서서 종편이라는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저는 물론 종편이 새로 발족이 되고 한 것이 미디어산업의 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 창출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러나 그것이 처음에 바랐던, 국민들이 희망했던 것만큼 그렇게 만족할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고 점차 앞으로 자리를 잡아 가면 달라질 걸로 기대를 합니다.

○홍영표 위원 좋습니다.

참 불행하게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금방 우리나라 방송시장 또 언론계 전체가 재앙 상태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이렇게 날치기 처리까지 우황청심환을 먹어 가면서 하셨는데 그때 논리가 일자리를 만들고 또 방송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킨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정부가 내세운 논리가 전부 다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일자리 2만 개 창출됐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나머지, 종편사들 잘 안 된다는 것은 스스로 초기니까 잘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잘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 여파로 해서 언론계 전체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의 공공성이나 공정성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 신문과 재벌들을 위한 종편사를 만들어 준 대가로 이렇게 국가적으로 언론계 환경이 나빠지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스스로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잠깐만요, 끝에 가서 대답하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여기에서 나온 근거를 가지고 종편을, 미디어법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고흥길 후보께서는 우황청심환까지 먹어 가면서 밀어붙였는데 그것이 다

거짓말로 드러났거든요.

대법원에서 판결난 것 아세요? 대법원에서 지난번 문화방송에서 경제적 효과를 조작 과장했다, 이렇게 해서 보도를 하니까 이 보고서를 만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허위보도다 이렇게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는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법을 주장했던 근거가 뿌리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 법원에서 판결로 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세요, 이 대법원 판결?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KISDI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간단하게 그냥 KISDI라고 하고 있습니다. KISDI의 연구용역 결과가 2만 1000명의 고용 신규 창출이 있다는 그 보고서가 있었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책연구기관의 용역보고서지 그게 반드시 그대로 실현된다는 사실, 보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도 있고 그대로 이행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사실 그만큼 신규 창출이 안 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래서……

○홍영표 위원 후보자께서는요, 이 대법원 판결에 어떻게…… 판결문 한번 읽어 보세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불통 대왕 아닙니까? 거기서 시키는 대로만 하시다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서 문화관광위원장 하셨지 않습니까? 여야 무슨, 야당 이야기 듣지도 않고……

미디어법에 대해서 우리 고흥길 후보자께서는 아마 역사적 책임을 지실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분을 이렇게 또 특임장관까지 임명하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야당과 소통을 하시겠다고요? 어떤 소통을 하십니까? 어떤 소통을 하시겠어요? 그런 입에 발린 말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특임장관의 역할이, 좋습니다. 소통을 한다 그러는데 민심을 대통령한테 잘 전해 주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책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 정권의 가장 심각한 것이 대통령 측근이나 친인척 부패 비리 사건입니다. 최근에 보면 최시중, 이상득, 대통령의 아주 측근 중의 측근, 거기다가 박희태 의장까지도 돈봉투 사건으로 사퇴하는, 참 우리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민주통합당에서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해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진상조사를 하려다가 하도 사안이 많아서 이름을 '온갖비리특별위원회'로 했어요,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핵심에서 이 사건들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아주 조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으로 자기 민정수석을 보내고,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가 더 이렇게 부패 공화국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임장관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 제대로 된 제안을 좀 하십시오. 이런 사건들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나 좀 제대로 전달했으면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말씀의 뜻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장관에 정식 임명이 되면 그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영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 위원 인천 계양을 출신 새누리당 이상권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고흥길 후보님, 특임장관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소통에 관한 것이 우리 특임장관의 가장 큰 임무인데 우리가 지금 소통이 가장 문제되고 있지만 90년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표했던 것에 의하면 90년에 사회통합 순위가 30개국 중 24위였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2010년에 39개국 중에서 23위로 여전히 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소통 부재로 인한 사회갈등 비용이 GDP의 27%인 연간 약 30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여야 간 갈등도 심하고 또 우리 시민단체들이 각각 각양각색의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통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통이.

그런데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소통이 좀 문제다, 우리 이명박 정부는 소통이 문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정권 거의 말기에 다다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변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 대정부질문 때도 총리를 상대로 한 번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의무교육 1년 연장한다, 그래서 만 5세도 지원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참 좋은 정책이고 적절하고 필요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갑자기 발표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걸 반기고 좋아하기보다는 '이게 뭐야?' '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잘했다는 칭찬을 받기보다는 '어? 그런데 이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는 되지만 다른 데는 안 된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일반 교회라든지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던 사람들 그것 혜택 못 받는다, 이런 구멍이 뚫린 조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난만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년 1월 달에 정부가 0세부터 2세까지 전면 무상보육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결과가 똑같았습니다. 아주 잘했다, 고맙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기보다는 그러면 5세도 되고 0세부터 2세까지도 되는데 보육비가 가장 필요한 것은 3~4세입니다, 사실은. 3~4세 빠져 있다 이런 비난이 나왔어요. 그러자 다시 3~4세까지 포함해서 이걸 하겠다, 이렇게 또 다시 나왔어요.

이처럼 정부 정책이 국민들과의 소통이나 또는 사전 협의나 이런 것 없이 '내가 하는 것은 선이다', 이게 무슨 마치 뭔가를 베풀어 주는 시혜처럼 발표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노영민 간사, 이명규 간사와 사회교대)

특임장관이 되시면 이런 소통이 좀 문제가 될 텐데 특임장관이 되시면 당·정·청 그리고 국민, 시민단체들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예를 본다면 특임장관으로서 소통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우선 이것 좀 묻고 싶습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통 부재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취임 초부터 계속된 일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개선이 됐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국민층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특임장관에 제가 임명이 된다면 사실 소통 문제를 제1의 임무로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해서 불철주야 뛸 것을 저는 결심을 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정책이 발표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오게 되고 또 과거 정책과 연결도 좀 되지 않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당정 간에 원활한 소통이라든가 또는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데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생각해서 앞으로 당정 간의 소통, 정책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다른 입법적인 문제 이런 데 전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충실히 이행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이고 그 밖에도 사실 특임장관으로서 할 일은 한없이 많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막연한 분야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선후를 잘 가려서 최선을 다해서 짧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최대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권 위원 꼭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임장관실에서 대국민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권 위원 약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특임장관실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좋지만 요즘 이제 SNS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되어 있고 그런데 특임장관실 홈페이지를 보면 소통의 창 '나도 한마디'에 들어가 보면 한마디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특임장관실과 소통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두 번째로 거기 자유게시판에도 보면 한두 건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건씩. 참여마당이라는 토론실에 들어가 보면 토론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특임장관실의 홈페이지 운영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임장관실의 트위터 팔로어 수가 2400명입니다. 2400여 명인데 일반인들 팔로어 수도 2400 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정치인들 팔로어 수 대개 보통 평상적으로 해도 5000 넘지 않습니까, 일부러 많이 안 해도? 그러면 특임장관실의 구체적인 소통 방법의 하나로

홈페이지나 기타 SNS를 충실히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좋은 말씀이고 저도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특임장관실이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고 참모로서의 역할, 또 소통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인상이 특임장관실에는 얘기를 해 봐야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특임장관실이 한 5개월 이상 비어 있었습니다, 특임장관이. 거기에 대한 이유도 있고.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는 당장 더 활성화되도록 이걸 고치도록 할 것이고 트위터라든가 SNS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이상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규 이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기갑 위원님 순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정선 위원님, 김재윤 위원님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기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갑 위원 후보자님, 지금 이명박 정부 임기가 5년 가운데 1년 채 못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일을 벌이지는 않겠지요? 후보자님 생각에 그렇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그렇습니다.

○강기갑 위원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에 추진을 했던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난 4년을 되돌아보고 진솔하게 반성하고 성찰하고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 바꿔 놓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도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저도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보다는 마무리하고 다음 정권에 인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기갑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특히 종부세·법인세·소득세·부동산양도소득세 등 감세 정책, 또 금산분리, 출자총액제 완화, 고환율 정책 등 해서 재벌들 곳간을 채워 주는 그런 재벌 중심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봅니다. 물론 재벌도 잘되도록 해야 되는데 반면에 상대적으로 우리 서민경제·지역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웠고 지금 서민들이 한숨과 근심 속에 나날이 지새우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민심이 다 들고 일어난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지금은 수습해야 되는 그런 단계다, 그리고 정말 반성하고 성찰하는 게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너무 불통으로써 일방적으로 당신 생각만 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경제 정책도 했고 특히 정치권인 입법부하고도 다수당이라는 그 장점 하나를 그냥 믿고 마구잡이로 청와대에서 지시하면 그냥 타협과 화합보다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대충 압니다. 예산안이라든가 4대강 예산들 국회에서, 우리는 비교섭단체기 때문에 크게 역할을 못 했지만 여야 합의를 얼추 다 이루어 갈 때, 조금조금이라도 해 갈 때, 저희 그 당시의 민주노동당 그 합의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지만 다 될 때 청와대 지시 하나면 특임장관이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쑥덕쑥덕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대로 밀어붙였어요. 그래 가지고 국회가 불통이 되고 전쟁터가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특임장관후보자로서는 '아, 이게 원인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이제 국회가 거의 정리되는 국회지요. 그래서 제대로 된 책임과 역할들을 정말 이제 국민과 이 정부가 어떻게 소통해야 되고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바로 바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주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상당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명박 정부가 재벌 위주의 정책만을 펴왔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기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을 못 하고 있다, 이 정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후보자 여기의 모두발언에 보면 '대화와 타협에 인색한 정치문화, 양보를 패배로 인식하는 정치관행, 극한 대립을 야기하는 정치제

도의 결함'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첫째는 이명박 대통령의 불통 그런 정치 인식 그리고 그냥 밀어붙이기식, 나는 거기에 국회가 그동안에 엄청난 파행과 충돌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벌 정책이…… 거기에 동의하기가 일부는 어렵다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전부 다 재벌 중심 정책으로 안 갔습니까? 지금 양극화가 상당히 사회적 문제라고 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의 양극화, 첨단 기업과 전통 기업의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각종 양극화가 이렇게 심화된 것은 그동안에 91조 원 감세 처리해 주고 고환율 정책 써 가지고 2008년, 2009년 2년 동안에 124조 원이나 16대 대재벌들에게 흑자 구도를 안겨 준 겁니다. 그래 가지고 고환율 정책 쓰고 하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통화량을 계속 늘려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더 올라가고 이것이 결국은 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농어민들 다 지금 아우성치게 한 건데 이 중심에는 재벌 중심 정책, 재벌 곳간 채우는 재벌 특혜 정책,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민경제가 죽고 지역경제가 죽고 민심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재벌 중심 경제로 했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 부분 공감도 한다는 말씀을 전제로 했고요. 경제 현상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분석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이 보시는 그러한 결과나 분석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측면의 결과나 분석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강 위원님과 그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논의를 하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기갑 위원 저도 여기서 서로 이것을 주장을 주고받고 하고 싶진 않고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부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정부가 인수할 때 중앙 국가부채가 299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1년 422.7조입니다. 123조가 늘어났어요. 이것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리고 공기업 연기금을 포함하지 않으면, 이게 249.3조에서 400조로 늘어나서 151조가 늘어난 겁니다. 이것 다 보태면 270조에서 280조에 달합니다.

이렇게 참 우리 국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채 더미의, 부채 공화국으로 가고 있어요. 모든 것들을 재벌에게 곳간 채워 주면서……

1분만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규 정리해 주세요.

○강기갑 위원 재벌에게 곳간 채워 주면서 서민과 지역경제 완전히 어렵게 만들고 이런 부채 공화국으로 자리에 올려놓은 이겁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이 부분을 특임장관후보께서 인정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미디어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그 당시의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책임도 크지만 특임장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성찰과 반성, 그리고 감세법안은 이번에도 작년 연말에 좀 돌려놨지 않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그렇습니다.

○강기갑 위원 그것 나는 반성과 성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런 역할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강 위원님 말씀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강기갑 위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대통령께 진언을 하세요, 잘못된 정책이라고.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말씀의 뜻을 잘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정식 임명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정선 위원 우선 특임장관으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감사합니다.

○이정선 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소통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정자께서는 이번 18대 국회의원까지 지금 3선을 내리 국회에 계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소통에 관한 많은 여러 가지 고민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소통에 관한 여러 가지 질책

도 많이 하셨는데 미디어법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소신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국회에서의 소통, 국민들이 바라보는 소통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게……

○이정선 위원 아니요. 국민과의 소통이 아니라 국회 내의 여당과 야당의 소통은 어떻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소통이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현상이지요.

○이정선 위원 그러면 그때 미디어법을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밀어붙였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과의 소통은 전혀 하시지 못하셨습니까, 상임위원장으로서?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소통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완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사실 면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으로서도 많은 잘못이 있고, 부덕의 소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미디어법을 관철해야 된다는 것은 저의 소신이었고, 또 그것은 어떤 특정 정파나 개인보다는 미디어산업의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두 가지 뚜렷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선 위원 소신을 갖고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역사가 판단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회 내 여와 야의 소통의 문제는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각각의 당리당략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가장 좋은 소통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이 부족한 것이 지금 우리 국회의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한 질타가 국민들로부터 많이 있다는 부분, 또 하나 특임장관으로서 지금 국무위원들과의 소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무위원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저는 특임장관일 뿐만 아니라 내각을 구성하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라든가 또는 각종 정부 부처 간의 협의사항, 또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에서 협의를 할 때 기탄없이 국민의 소리 또 약자의 소리 또 야당의 소리를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국무회의가 아무런 이의 없이 안건 제안과 동시에 통과되는 이런 식의 운영방식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부처 간의 조율이라든가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국민들을 향한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실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역할 또한 특임장관의 역할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문광위의 위원장이셨기 때문에.

지금 문광위에서는 게임산업 육성을 하고자 하시고요, 또 청소년 쪽에서는 게임 중독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의 부처의 충돌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것은 사실은 국민, 청소년, 이런 분들이라는 말씀이지요.

굉장히 저는, 인터넷 셧다운제를 제가 발의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 부처 간에 조율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문화관광 부처는 굉장히 힘이 센 부처고, 여성가족부는 가장 힘이 약한 부처로서 그러면 과연 게임산업의 육성이 우선이냐 우리 청소년이나 게임 중독에 걸린 일반 국민들이 우선이냐라는 부분의 문제를 놓았을 때 과연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라는 부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힘센 부처에서 말을 잘 안 들어주고, 힘센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부분에서 게임 중독 문제의 사회화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문제에서의 조율은 사실은 특임장관님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아주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여가부하고 사실 문화관광부하고의 의견 차이로 그게 진통을 겪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을 하려고 아마 국무조정실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회현상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절대 선이라든가 절대 악이라든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택의 문제고, 우선순위의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문제가 항상 논란의 초점이 되고 갈등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특임장관인 제가 무슨 전지전능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당을 조정을 하고 이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국무위원의, 내각의 일원으로서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또 현재의 공익적 입장에서는 무엇이 최선인지 이러한 판단하에서 조언도 하고 그러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느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것은 이것이 옳고 이것은 이것이 옳고 하는 판단이나 이런 것을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정선 위원 그렇지만 장관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약자들을 우선 배려하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이 우선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 중요합니다. 산업이 있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먼저 있어야 되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않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명규 마무리하게……

○이정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소통을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윤 위원 김재윤입니다.

제가 얼굴을 보면서 참 질문하기가 곤혹스럽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존경하는 분이고 또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훌륭한 분이시라는 게 정평이나 계신 분인데요.

능력이 매우 출중하신데 그 출중한 능력을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만드는 데 쓰는 게 좀 문제 아닙니까, 오히려 국민들과 소통하고 야당과 소통하는 데 쓰셔야 되는데.

언론악법 날치기에 앞장선 보은인사로 특임장관에 지명되신 것은 아닌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웃으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윤 위원 언론악법 날치기에 앞장선 후보자가 국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특임장관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윤 위원 고흥길 장관후보자가 특임장관이 되면 오히려 여야 소통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저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윤 위원 언론악법 날치기에 앞장선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아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매끄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재윤 위원 지금 고흥길 특임장관후보자께서 문방위원장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내는 동안에 무려 네 번이나 날치기 처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18대 들어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매년 거르지 않고 날치기를 했는데요. 이 날치기 처리의 네 가지가 우리 특임장관후보자께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할 때나 문방위원장 지낼 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날치기 처리라는 것은 솔직한 말씀으로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처리를 다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그게 불법적인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러나 예산이라는 것도 법정 기일 내에 통과되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또 법안이나 중요한 의안들도 그 나름대로의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처리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재윤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이야말로 국민의 삶과 우리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것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마땅한데 날치기 처리합니다.

그리고 언론악법, 이것은 방송과 언론의 자유 그리고 방송과 언론의 다양성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그리고 한미 FTA,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날치기 처리하고, 이렇게 날치기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제가 국회 운영의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그 문제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윤 위원 결국 우리 특임장관후보자께서 앞장서서 언론악법을 처리하셨는데 그 결과 어떻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종합편성채널이 무려 4개나 출범을 했는데요, 시청률 보십시오. 1%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재윤 위원 그리고 한국신용정보가 펴낸 '종합편성채널 개국과 방송시장의 변화'라는 보고서에 보면 4개나 되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가 안정적인 광고 수입과 시청률을 확보하고 국내 방송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그 문제는 종편을 허가하기 전부터 제기되던 문제입니다.

또 제가 2000년도에 언론발전연구회라는 국회 연구단체를 죽 책임을 지고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까지 12년 동안.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그때도 그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됐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김재윤 위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장할 때, 사표는 냈습니다마는 지금도 방통위원장입니다. 우리 고흥길 문방위원장도 같이, 문방위원장 시절에 최시중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이었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그렇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런데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언론악법 처리 직후에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서 문방위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아는 바가 없고 또 사실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문방위원장으로서 최시중 위원장이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재윤 위원 돈봉투를 받거나 돈봉투를 주려는데 거부한 적은 없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재윤 위원 삼성 불법 정치자금 전달 의혹 관련해서 언론에서 보도된 것 알고 계시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이것은 '정경언착'의 고리가 우리 고흥길 특임장관후보자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그것도 사실이 다른 얘기입니다.

○김재윤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X파일 아시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X파일이 지금 후보자를 거론하면서 후보자는 장관급 대우 또는 3선급 이상으로 대우해 달라고 이회창 대표에게 말했고 이회창 대표도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지적이 있어요. '우리가 고흥길이를 통해 모두 18개나 줬는데 그것을 다 갖다 바친 모양이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고흥길 장관후보자께서, 장관급 내지는 3선급 그 대우는 이해가 가는데 18개가 뭡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그것도 전혀 본인과는 무관한 사실이고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재윤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

시겠고요, 그다음 순서는 노영민 위원님, 김낙성 위원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황영철 위원 황영철 위원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전 특임장관께서 사임하신 날짜가 언제이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지난 8월로 알고 있습니다.

9월, 9월 15일……

○황영철 위원 9월 10일…… 그렇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5개월 정도 공석입니다.

○황영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관이 사임한 날짜는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차관은 12월 말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저는 특임장관이 MB 정부에서 해야 될 막중한 소명에 비해서 너무 특임장관실을 방치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뒤늦게나마 후보자를 임명해서 이 청문회를 갖고 있습니다만 장관 공백기간이 이렇게 늘어났고 또 12월 30일 이후에는 차관도 없이, 직무대행을 누가 하셨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직무대행은 국무실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러니까 장관도 없고 차관도 없고 결국은 실장이 직무대행을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특임장관실이…… 소중한 소명을 갖고 특임장관실을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정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임명을 그렇게 오랫동안 못 했을 때는 그 나름대로의 임명권자의 고충이나 또는 정부의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도 됩니다.

○황영철 위원 어쨌든 이런 상당한 공백기간을 거친 이후에야 장관이 임명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시기에 맡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맡게 되고, 그래서 이 정권 말기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점에 대한 임명 소감이랄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지난 2월 1일 날 청와대 대변인이 내정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저에 대한 과찬의 말씀, 과포장된 이런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러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고, 저는 제가 이 특임장관에 임명된 것을 개인의 명예라든가 또는 흔히 요즘 세상에서 얘기를 하지요? '가문의 영광' 이런 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적인 입장에서 제가 최선을, 공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입장뿐입니다.

○황영철 위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소위 말해서 정권 초기라거나 또 정권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거나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때 장관에 임명받고 그럴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홀가분한 마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흥길 후보자께서는 어려운 일에 이 부분을 맡겠다고 본인이 수락을 하신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소명의식이 투철하다 저는 이렇게 또 평가를 해 봅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감사합니다.

○황영철 위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주어진 임기 동안 정말 고흥길 장관에 의해서 정당 간의 소통, 또 사회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각 사회단체와의 소통들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한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모 의원님으로부터 이런 보도자료가 언론에 배포됐습니다.

장남에게 43평의 아파트를 주면서 신고가액을 시세보다 낮게 신고해서 그만큼 세금을 적게 냈다는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그 질의를 사실 참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 보도자료가 나와 가지고 언론인들로부터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10년 가까이 살고 있던 잠실의 우성아파트라고 45평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저희 장남에게 증여를 했는데 증여했을 때 가격이 소위 말해서 12억으로 시가가 책정이 됐는데 당시 시가가 13~15억이다 하는 것이 그 의

원님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12억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12억이 되는 것도 아니고 13억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국세청의 가격과 또 국토해양부의 당시 거래가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2억으로 나온 것이고 세무사가 그것을 책정해서 그대로 산정된 가격으로 증여세를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도소득세를 거기에 대해서 물었고 저의 증여를 받은 장남이 거기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황영철 위원 증여세 납부가 있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기타 세금을 다 낸 것입니다. 증여세를 낸 것입니다.

○황영철 위원 그러면 후보자님 말씀대로라면 탈루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황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것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특임장관실에서 여론조사 많이 합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많이 하지요.

○황영철 위원 좀 살펴보셨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아직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황영철 위원 못 보셨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황영철 위원 특임장관실에서는 몇 가지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가 과연 적정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2011년 10월 달에 나온 의약품 약국 판매와 관련한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공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2011년 12월 1일자의 모석간에 보도된 정치·사회 등에 대한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과연 적절했는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여론조사와 관련돼서는 정말 필요한 여론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특임장관실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할 만한 여론조사가 저는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킬 여론조사 할 이유가 없잖아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그렇습니다.

○황영철 위원 제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임명되시고 나시면 지금까지 특임장관실에서 조사된 여론조사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정확히 살펴보시고요. 국민의 세금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니까 꼭 필요한 곳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2011년 9월 11일 날 여론조사를 특임장관실에서 했는데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의 72.6%가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라는 여론조사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특임장관실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발표하고 나면 끝입니까? 발표를 했으면 과연 이 발표와 관련된 국민들의 여론을 받아들여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야 됩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그 문제는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를 하겠는데요. 특임장관실이 능동적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든가 입안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인원으로 보나 조직으로 보나.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적정한 곳에, 정부의 관계부처에 보고도 하고 서로 의견도 종합하고 하는 그러한 차원까지가 특임장관실의 업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황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요 장관님 임명되시고 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약에 이런 여론조사를 하시면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께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통령께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잘 알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규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민 위원 18대 국회가 사실 국민들로부터 많은 실망을 받았고 그 위상도 많이 실추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저는 다수 여당인 한나라당의 독선적 국회 운영이

고 그 스타트를 끊은 것이 바로 특임장관후보자의 문방위 날치기사건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중립적 위치에서 원만하게 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하고 언론악법을 날치기 상정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명백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결국은 그러한 상정을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상정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또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다만 그것이 어떤 미디어법을 상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정치적인 소신이라든가 또는 당시의 당위성에 대한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영민 위원 당시에 우리 내정자께서는 미디어법, 이 언론법이 일자리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민생법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당시에 제가 무슨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KISDI라는 정부 산하기관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숫자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연구용역이 반드시 100% 옳다 하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수의 신규 노동이나 고용 창출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노영민 위원 당시에 KISDI의 그 보고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정부의 어떤 요구에 따른 맞춤형 보고서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당시의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것을 믿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것을 인용했으면 거기에 그렇게 나왔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당시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일자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민생입법이라고 했어요, 인용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느냐고 묻는 겁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일자리가……

○노영민 위원 그 법이 일자리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민생법안입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일종의 민생법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영민 위원 일종의 민생법안이 될 수도 있다는 표현이 아니었고, 다르지요. 일자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민생법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느냐고 묻는 겁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일자리가 기하급수적이다는, 기하급수적인 것은 하나의 수식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자리가……

○노영민 위원 과장됐다는 표현이시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늘어날 전망……

○노영민 위원 그것은 민생입법과는 전혀 관계없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특임장관 내정되실 때 누구로부터 연락받았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당일 날 실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노영민 위원 예?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2월 1일 날, 대변인이 발표하던 날 그날 아침에 받았습니다.

○노영민 위원 대변인이 발표하는 날 비서실장으로부터 연락받으셨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노영민 위원 특임장관이면서 또 국무위원이시지 않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그렇습니다.

○노영민 위원 국무위원은 총리가 제청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그렇습니다.

○노영민 위원 그런데 이 정권하에서 한 번도 지켜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난 정권 때도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난 정권 때는 형식은 지키려고 좀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권하에서는 그런 형식조차 지키려고 하는 것 같지 않다, 그래도 헌법에 규정된 규정인데,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회에서 ISD 폐지·수정을 위한 한미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아시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알고 있습니다.

○노영민 위원 현재 정권이 국회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계신지 혹시 아십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자세히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영민 위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야 간에? 그렇지요? 그러면 특임장관의 업무 중에서 중요한 업무가 될 텐데 그거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당에서 왜 그것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 지도자들에 대한 서한 발송을 했는지, 또 뭐를 구체적으로……

○노영민 위원 아니,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서 냈으니까, 국회의 요구에 대한 행정부의 대응을 묻는 겁니다. 다른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재협상 촉구 결의안에 대한 행정부의 대응을 묻는 겁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민 위원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노영민 위원 ISD라는 게 투자자-국가 제소조항 아닙니까?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가 여러 나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중에서 ISD를 채택한 나라는 어떤 나라들인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ISD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부 학자들 주장이나 또는 정부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더 필요로 하는 조항이다 하는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일괄적으로 무슨 폐기한다거나 또는 대폭 수정을 해야지 된다거나 하는 것은 보다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영민 위원 제가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미국이 FTA를 체결한 나라는 쌍무적인 것도 있고요, 아니면 집단적 협약도 있습니다, NAFTA 같이 그다음에 CAFTA나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FTA를 체결한 나라 중에서 적어도 도시국가 수준이 아니고 민주주의 수준도 어느 정도 된 나라 중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는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호주와 이스라엘입니다. 호주와 이스라엘은 ISD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 중에서 ISD를 도입한 나라는 전부 쿠데타가 상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법적 안정성을 줄 수 없는 나라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왕정국가처럼 사법부 독립이 인정될 수 없는 이런 나라 그렇지 않으면 미군의 기지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민주국가라고 할 수도 없는 이상한 쿠데타가 아주 빈발하는 나라 이외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ISD를 도입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이거 알고 계세요?

그리고 독일이라든지 유럽 같은 나라는 ISD 조항은 국가의 위신과 관계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성, 그 나라의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부인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그 점에 대해서는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고 또 다른 측의 얘기도 사실은 얘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영민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한번 이 통계를 외교부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 중에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쿠데타 상습국가 아니면 아주 왕정 이런 국가, 중동의 조그마한 나라들 이런 나라 이외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ISD 조항을 도입한 나라가 없어요, 한 나라도.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그래도 인정된다고 하는 나라 중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ISD를 도입한 유일한 국가라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규 노영민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노영민 위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오전 마지막 질의로 이화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낙성 위원 충남 당진 출신 자유선진당 김낙성 위원입니다.

특임장관후보자께서는 모두발언에서 논어의 견리사의(見利思義)라는 말씀을 인용을 해 주셨는

데 이것을 장관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잘 이행을 해 주시기를 우선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김낙성 위원 그다음에 우리 후보자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주 독실한 카톨릭 천주교 신자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맞습니다.

○김낙성 위원 성경에 보면 십자가 희생 없는 부활은 없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난과 희생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말인데 이명박 정권이 탄생된 것은 우리 국민들부터, 경제를 좀 살리라는 그런 뜻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맞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김낙성 위원 그런데 그 경제가 살아나기는커녕 MB 정권 4년이 지난 지금의 경제 상황은 파탄 일보 직전에 와 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고위직 측근 비리는 계속 터지고 있고 또 국가 채무 규모를 보면 2007년도에 299조였던 것이 금년 말 448조로 50% 이상 이렇게 늘어날 전망이고 국가 채무에 잡히지 않는 10대 공기업 등의 부채 규모가 2007년 120조 3000억에서 금년 말에는 301조 6000억으로 2.5배가 증가를 하게 되고 정말로 이런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는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가계 부채도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서면서 물가가 급등하는 등 우리 서민경제는 물론 국가경제가 완전히 실패했다, 국민들은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없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MB 정부가 경제성장을 하면서 사실 제일 먼저, OECD 국가 중에서도 경제 플러스성장을 한 나라가 몇이 없고요, 또 이러한 서민물가 가계 비중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부로서는 노력을 했지만 국내적인 요인보다는 대외적인……

○김낙성 위원 거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렇게 당명을 바꿨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김낙성 위원 과연 이 당명만 바꾼다고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 있을 총선·대선을 통해서 다시 집권이 가능하다고 우리 특임장관후보자께서 생각을 하십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가능하다, 안 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낙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지적한 대로 중앙정부 부채가 이렇게 큽니다. 많습니다. 국민의 걱정이 많습니다. 이것이 국가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부를 걱정한다…… 그런데 제가 대정부질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1년에 단 1%라도 줄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줄여 줘야 지방정부나 공기업이 줄일 수 있는 것이지 중앙정부는 계속 늘리면서 공기업이나 지방정부보고 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맞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 부채가 계속 무한정 늘어나고만 있는 상황은 사실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도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법인세율·소득세율의 상한선을 하나 더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점도 다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낙성 위원 후보자님 말이지요, 이제 장관이 되시면 앞으로 대통령을 임기 동안 잘 보필을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국민이 생각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구제역이라든가 농산물 가격 폭락이라든가 또 기름 유출이라든가 이렇게 농축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현장에 대통령 목소리는 전혀 없습니다, 나타나는 것은 그만두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이명박 정부가 기득권자, 있는 자 편에서 그동안 정부를 이끌어 왔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신하실 겁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지금 농업 분야나 서민층에 대한 관심이 이명박 대통령이나 현 MB 정부에서 관례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상 어느 정부보다도 그 문제에 대한 신경이나 정책적인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대로 전파가 된다거나 또는 서민이나 농민들이 실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데 대해서는 무한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

로……

○김낙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당진 지역 같은 데 가서 보면 화력발전소가 편중이 되어 있어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전기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이것이 화력발전소가 늘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탑이 말도 못 하게 많이 늘어나 가지고 결과적으로 환경 파괴라든가 지가 하락이라든가 경관 훼손이라든가 주민들 건강까지 해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도 우리 특임장관께서 앞으로 많이 나타나셔 가지고 해결책을 좀 찾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농촌 지역의 도시가스나 상수도 보급 확대 문제입니다.

우리 당진이 시로 승격이 됐는데도 도시가스 보급률은 53%, 면 단위 아파트까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또 상수도 보급률도 굉장히 뒤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의 오륙십 평짜리 아파트는 난방비가 한 달에 20만 원만 가지고 해결되는데 시골의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아파트는 100만 원 이상 들어간다, 또 노부부가 사는 농가주택은 기름보일러를 놓으면 6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저소득층의 난방비, 겨울에 떨고 있는데 이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촌 난방용 면세유 공급을 해 준다든가 특단의 조치를 해 주어서 도시의 정말로 부유층은 싼 가격으로 겨울을 날 수 있는데 농촌의 이렇게 어려운 저소득층, 노령자 이런 사람은 전혀, 겨울나기가 어려우니 말이지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줘야 이명박 정부가 기득권, 있는 자 편에서 국정을 운영했다는 그런 오명을 벗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김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임명이 되면 현 실태를 한 번 더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전 마지막 질의로 이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한나라당 안산 상록갑 이화수 위원입니다.

먼저 특임장관에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감사합니다.

○李和洙 委員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특임장관실이 어떤 기관인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 후보자께서 특임장관실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죠.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지금 특임장관실 말씀하신 대로 정부조직법 17조에 딱 한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위원 1명인 특임장관을 '둔다'도 아니고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특임장관 임명이 상당 기간 없었고 또 2009년도까지도 특임장관실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설치가 안 됐던 겁니다.

무한히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무가 아주 제한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떻게 저한테 임명이 될 때 지시를 하실지, 어떤 임무를 부여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 법 내에서, 법령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和洙 委員 그런데 지금 정부조직법에는 그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또 의외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일본이나 독일 등 해외 선진국들을 보면 특임장관이 국회, 정당, 시민사회 소통을 통한 정책 지원뿐만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정책 그리고 다문화 정책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미래에 있을 갈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좀 검토를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상 특임장관실을 잘 운영하고 있는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에서 볼 때 상당히 다양한 업무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문제를 대통령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시지 않더라도 특임장관실에서 건의를 해서 그런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든가 또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명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장관에 임명이 되시면 현 정부의 임기 말 국정 운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李和洙 委員 다음은 노동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친재벌 반노동자 정책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노동계와 소통이 막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거 노사정 간의 갈등이 심했던 시절에도 노정 간의 대화창구는 계속 열려 있었는데 지금은 노정 간의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MB 정권 출범 시에 한국노총이 지지를 했고 정책연대를 함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결과를 가져 온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노동전문가이신 이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나라당이 과거에, 지금의 새누리당입니다마는 한국노총과 정책연대까지도 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의 소통 부재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정식으로 임명이 된다면 이 위원님을 비롯해서 각 노동전문가이신 여러분들의 말씀도 듣고 또 직접 노총이나 이런 데도 방문을 해 가지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정부가 도와드려야지 되고 그들의 건의 사항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소통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우리나라가 작년 12월에 세계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나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린 노동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업주들의 노력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런데 1700만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좀 위로해 주고 그리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하나도 마련되지 못했거든요. 만약에 장관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노동자들을 위로하고 그다음에 격려할 수 있는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저는 노동부장관이 저보다도 훨씬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노동자 문제라는 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더 개선할 수 있는지, 정부도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응분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미력이나마 힘을 다 쓸 생각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독단적인 생각보다는 관계부처라든가 또는 노동전문가라든가 노동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해서 상황을 파악한 후에 어떤 결정이나 건의를 제 나름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비정규직, 아주 전형적인 노동문제는 고용노동부가 하더라도 그 외에 노동자들, 그 인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1800만 명에 달하는 그 노동자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방안은 고용노동부에서 못 한다면 특임장관실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도 특임장관실에서 지원한 시민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금 사업 중 26건이 있는데 노동단체 사업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2년 동안 시행된 여덟 번의 시민사회단체 해외연수에 노동계가 참석한 기록은 없거든요. 그럼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우리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충역할을 하시면서 챙겨 주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해 주시죠.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특임장관실이 그동안 비영리민간단체 중심으로 예산 및 해외연수 사항 등을 지원했기 때문에 노동계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개선점이 없는지 신중히 검토해서 지금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규 이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순 위원 강원도 원주 지역구 박우순 위원입니다.

2008년 6월 달 정연주 당시 KBS 사장에 대한 퇴임 공세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돌아가신 이영희 선생께서 보낸 글 중에 '명예로운 죽음으로 역사에 기록되기 바라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박우순 위원 그리고 그 글 말미에는 '반민주주의 집단의 폭력과 모략으로 꺾이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명예롭게 소임을 다 하시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특임장관후보자님께서는 이영희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그분은 상당히 존경을 받는 언론인이셨고 또 학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우순 위원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30여 년간 언론인으로서 활약을 하셨으니까 특별히 이영희 선생님에 대한 존경도라든지 그 말씀의 비중이 어떤가 잘 아시고 계시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양반은 합동통신에 계셨습니다, 옛날에 언론계에 계실 때. 그래서 그때부터 잘 알고 있었고 그러나 개인적인 접촉이나 이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박우순 위원 이때가 정연주 사장이 세금 관련 소송에 배임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고 이것을 이유로 2008년 8월 달 강제 해임된 것 아시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우순 위원 그때 정연주 사장이 안 물러나니까 청와대, 방통위 또 KBS 이사회,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원, 국세청, 검찰 등 모든 정부기관이 전방위적으로 정연주 사장한테 퇴임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2심에서 배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대법원도 결국은 1월 12일날 판결문을 통해서 검찰의 기소항목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유를 설시하면서 전부 이유가 없다고 해서 무죄를 확정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우순 위원 이러한 결정은 검찰이 결국은 무리한 기소를 했고 현 정부가 방송 장악을 위해서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주장에 타당성을 실어 준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장관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저는 그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정연주 사장의 해임이 결국은 특정인을 갖다가 특정시켜서 퇴임시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에 감사원이나 KBS 이사회에서 해임을 건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해임이 됐는데 본인의 재임기간 중에 일이 있었던, 소위 말해서 업무상 배임 문제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무죄판결이 난 것이고 그 밖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감사원이라든가 KBS 이사회의 결정 이외에 다른 어떤 이것도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언론계에 오래 종사했던 사람으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이명박 정부가 무슨 언론을 장악하거나 방송을 장악한다는 취지에서 그런 일을 무리수를 둬서 했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또 그렇게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모는 것은 사안의 성격상 조금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우순 위원 그러신데 하여간 정연주 사장이

결국은 강제 퇴임을 당했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이제 판결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박우순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걸 만회하는 길은 우리 장관님께서 임명권자이신 대통령께 복직을 권유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와 비슷한 관례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MB 정부 수립 이후에 해임을 당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법원의 판결로 복직 판결이 났는데 결국 복직은 하지 못하고 임기를 두 사람의 위원장이 같이 근무를 하는 이런 양태가, 아주 부자연스러운 형태가 계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연주 사장 입장에서 봐서 무슨 억울하다든가 부당하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는 몰라도 대국적인 차원에서 또 KBS라는 국민의 방송의 권익을 지키고 소위 말해서 조직의 정통성이랄까 조직의 법통성, 하여간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거기에 다시 복직을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박우순 위원 하여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언론이 심히 왜곡·축소돼서 언론의 자유가 많이 침해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박 위원님하고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그것은……

○박우순 위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너무 길게 시간을……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박우순 위원 하나는 제가 강원도 의원 또 원주 의원으로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또 '지방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보면 수도공화국, 서울공화국, 수도권공화국이라고 그럴 정도로 지방에 대한 각종 정부 지원금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임장관님께서 이를 특별히 지방에 대한 재정 지원이라든지 지방 활성화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저도 전적으로 박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면서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라는 점 때문에 불합리하게 특혜라든가 특별한 세제상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도 특히. 그래서 그러한 점도 다시 한번 죽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순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명규 예.

○박우순 위원 지난번 이재오 특임장관님께서 원주 의료기기 부분 거기에 대해서 특별 지원을 몇 차례나 약속하셨고 대통령도 아주 여러 번 오셔서 특히 원주의 의료고등학교, 마이스터고에 대한 특별 지원을 몇 차례나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그냥 말씀에 그쳤다 이렇게 되는데, 특임장관님께서 특별히 원주 의료기기 부분 또 특별히 원주 의료고등학교, 마이스터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우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중 위원 부산 수영구 출신 유재중 위원입니다.

먼저 특임장관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감사합니다.

○유재중 위원 정권 중반기를 지나면서 새롭게 제시된 우리 국정운영목표가 공정사회였습니다, 그렇지요?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어 주고 고루 잘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인데요.

그러면 이런 사회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과제는 저는 지금까지 누적된 우리 사회지도층의 어떤 도덕 불감증을 척결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지만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할 국가지도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됐고 또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가경제를 견인해야 하는 기업인들은 비윤리적인 경영방식으로 노동운동을 착취하거나 경영의 성과물을 독식해 왔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현 정부의 국무위원 인선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장전입이라든지 부동산 투기라든지 병역 면제 의혹이라든지 편법적 재산 증식 또 자녀의 외국국적

등 장관 지명과 동시에 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렇지요? 좀 그런 부분도 있지요?

국정을 책임질 국무위원후보자는 이런 의혹에서 좀 자유로운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특임장관후보자께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또 깨끗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저도 우리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전적으로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고, 특히 공직자일수록 청렴한 자세라든가 깨끗한 생활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사실 오히려 공직사회에서, 특히 고위층에 있을수록 그러한 비리 사건이 많이 빈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이 아마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처리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비리에 대해서 정말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조치들, 결과들이 나오리라고 믿고 있고 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중 위원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공직자들이, 있는 자들이 좀 부도덕하게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실망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또 사회의 갈등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직비리 척결이야말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에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 추구 금지 법안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그것은 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공청회 등을 통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공직사회로의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저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조를 할 생각입니다.

○유재중 위원 정말 이 법안이 각 부처와 공직사회 전반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있어서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특임장관후보자께서 반드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중 위원 그리고 지방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앞서 우리 박우순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부산의 아시아영상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발의돼 가지고 지금 문광위에 계류 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또 문광위원이셨으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중 위원 국제영화제로 인해 가지고 부산이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영화제로 자리 잡았는데, 주최 국가에서 그 법안을 통해서 법적·세제적·제도적으로 좀 지원이 되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산국제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로서, 영상산업의 어떤 메카로서 영화진흥위원회, 남양주 영화촬영소가 다 부산으로 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중 위원 그렇게 만들어지면 우리 제2도시 부산이 힘들다고 하는데 국가 균형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저도 지방이 골고루 균형적인 지역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특히 부산의 경우 부산영화제는 이제 국제적인 영화제로서 완전히 자리매김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입법적인, 제도적인 지원체제가 확립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햇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의회라든가 또는 정부라든가 또 관계 기관, 영화계를 비롯한 예술계에서 좀더 노력을 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저도 특임장관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관심을 가져 왔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 하나의 예로 지난 정권 때는 광주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으로 해서 통과됐습니다. 지역 이기주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다른 문화적인 인프라가 없는 데서도 특별법으로 발의돼 가지고 통과됐거든요.

우리는 이제 국제영화제로 완전히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법안이 좀 통과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광주문화도시 그 문제는 당시에 정동채 장관이 광주 출신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고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입법이라든가 또는 지역발

전에 대한 특별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정치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부산의 지금 입법은 매우 타당하고 또 여건도 그렇게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중 위원 그렇습니다. 특임장관으로서의 역할이 정권 후반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처음에 장관·수석들 모든 분들이 국회에 진출하러 나오고 계시는데 이 마무리를 특임장관으로서 모든 것을, 컨트롤타워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잘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유재중 위원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金光琳 委員 경북 안동의 김광림 위원입니다.

고흥길 특임장관후보님, 참 앞부분에 형용사들이 많이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30년 언론계 종사, 정치부장 사회부장 북한부장 편집국장 논설위원 또 신사 기자로 30년을 역임해 오신 것 같습니다. 또 16·17·18대 내리 3선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이번 18대에서는 집권 여당의 정책위의장, 문광위 위원장 역임하셨고요. 또 특이하게 2003년부터 지금까지 사단법인 한국혈액암협회 회장으로 계시네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그렇습니다.

○金光琳 委員 지금도 계십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지금도 맡고 있습니다.

○金光琳 委員 그래서 이런 인간 관계,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인사청문 요청사유에 보면 '정부와 여야 정당과 그리고 시민단체 간에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의 적임자' 이렇게 요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민단체도 그렇고 여야도 그렇고 일을 하시다 보면 여론 중론이 있고 한쪽에서는 가야 할 정론이 있거든요, 원칙과. FTA도 그렇고 또 현재 문제되고 있는 저축은행특별법 같은 게 있는데 여론 중론과 정론이 부딪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저는 그 문제는 아주 간략하게 제 나름대로의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의견을 존중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다수의견이 반드시 옳고 정당한 것만은 아니다, 국민의 여론은 그렇더라도 정론이 있을 경우에 그 정론에 대해서 원칙을 지킬 사항은 또 지켜야지 된다는 그런 확실한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심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은……

○金光琳 委員 정론을 꼭 지켜 주시는데요. 대통령께서 업무를 지정하실 때 대통령 의중과 장관님하고 의견이 좀 다르다, 이렇게 느끼실 때도?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저는 대통령께서 결정하시는 사항을 갖다가 제가 준수할 의무가 있고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제 판단에 대통령의 결정이, 뭐 그러실리야 없겠지만 혹시 제 생각하고 다르다 할 때는 제 다른 생각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2차, 3차 말씀을 드려서 그래도 대통령께서 지시한다면 그것은 밑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따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光琳 委員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金光琳 委員 정부조직법에 보면은요, 특임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그리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 이걸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범위가 좁은 것 같지마는 대통령 지정만 받으면,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만 해 주면은 모든 어느 부처의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굉장히 하시기에 따라서는 업무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동의하십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그렇습니다.

○金光琳 委員 그러면 꼭 이렇게 한번 챙겨 봐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는데요.

도청 이전들 보면요, 2005년에 김대중 대통령 때 시작했던 전남 광주 도청이 무안으로 옮기는 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끝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대전에서 홍성·예산군으로, 충남도청이 완공이 됩니다.

경북도청은 어디로 옮기는지 아십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안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光琳 委員 예, 안동이라 해서 고마운데, 안

동과 예천으로 옮기는데 2008년도에 확정이 돼 가지고 4년째 지금 예산이 들어가면서 건축 중에 있는데 예천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두 가지만 꼭 좀 챙겨 봐 주시고 이것을 대통령께도 좀 말씀드려 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전남도청하고 경북도청하고 지원하는 기준이, 복잡한 설명 필요 없이 좀 형평성을 맞추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 지원 비율 이런 것들이 정부 측의 뭐 복잡한 미로적인 설명보다는 시민들이 볼 때 도민들이 볼 때 "아, 그랬었구나. 비슷하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첫 번에 하자면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도청의 청사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에 지하주차장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남도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경북도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금년 예산할 때 정부에서 국회로 넘겨 올 때는 그게 빠져 있었는데 국회에서 증액이 일부 되었는데 그 증액 부분이 지하주차장을 건축 면적으로 인정해서 그런지 그냥 증액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지하주차장 면적도 전체 도청 건축 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특임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그 문제는 제가 지금 현재 행안위 소속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청을 지금 예산하고 홍성 그 중간에다가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주차장 예산이 반영이 안 됩니다. 국비로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방비로. 그러나 솔직히 지방재정상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700억 정도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그것을 일부 반을 예산에서 순증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경북도청의 경우에도 사실상 지하주차장이 충남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준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때 어떻게 예산이 반영이 될지는 제가 지금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영이 돼야지 될 걸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光琳 委員 예, 그래서 전남도청과 충남도청, 경북도청의 지원 기준과 지원 비율에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고 또 어느 경우에도 도청 청사 내의 지하주차장 면적은 도청에 소속된, 도청 건물에 소속된 건물이다, 이 두 가지를 좀 명심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첫 업무로 좀 챙겨 봐 주십시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확실하게 기억하겠습니다.

○金光琳 委員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世淵 委員 부산 금정 출신의 김세연입니다.

먼저 고흥길 특임장관후보자께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분명히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오셨고 또 많은 동료 의원들로부터도 많은 존경을 받아 오신 점에 대해서, 이렇게 후보자로서 뵙게 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뜻 깊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감사합니다.

○金世淵 委員 먼저 정부가 해야 될 역할 중에서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간 갈등 관리를 제대로 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런 부분에서 특임장관실의 역할이 크게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책사업의 특성상 지역 민심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아주 작은 지역 사안들이 크게 확대가 되어서 정치 전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작년에 있었던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국민적인 혼란이나 또 지역 갈등이 심화되었던 이런 상황들이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주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신공항 입지 선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양 지역 간의 합의정신이 반영됐으면 제일 좋겠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쪽의 신공항 문제를 놓고 경북 지역과 부산 지역의 의견이 아주 첨예하게 갈려 가지고 결국은 그 계획이 현재로서는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그다음에 LH공사, 소위 말해서 토지주택공사

의 본사 이전 문제를 놓고도 전주와 진주에서 상당히 첨예한 대립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주로 가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결국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사실 불필요한 갈등이 초래되고 양 지역 주민들 간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상당히 조장하게 되고 부작용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면 국무조정실, 그렇지 않으면 양 당사자들 간에 협의기구를 두어 가지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서 발표가 된다거나 동의된 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어떤 약속 이런 게 이루어진 다음에 결정이 최종적으로 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그러한 좋은 선례들이…… 좋은 선례는 아니지요. 나쁜 선례지요, 두 가지가. 그래서 그 선례들을 참고로 삼아서 저희가 앞으로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특히 지방과 지방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때에는 신중하게 해야지 될 거고 그 신중한 조정이나 의견을 맡아서 해야지 되는 게 또 특임장관의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이나 총리가 그것을 위임을 했을 때 특임장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지 제가, 특임장관이 만약에 임명됐다고 그래서 임의로 제 마음대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金世淵 委員 방금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셨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라든가 또 첨단의료복합도시,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여러 사안들이 있었지만 특히 동남권 신공항 관련해서는 첨예한 지역 갈등이 큰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지역 간 합의도 매우 중요한 것이 맞지만 정부의 결정이 실기하지 않고 보다 신속하게 적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약속된 공약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면서 동시에 그 절차가 항상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되고 또 전문가들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중립적인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결정에 승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잘 관리를 하는 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잘 알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그리고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사회 양극화 현상 때문에 정말 국가적인 위기상황까지도 곧 맞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 타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여러 번의 폐지와 부활을 거쳐서 지금은 다시 폐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워낙 대기업들의 영향력이 지금 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지금 재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이 문제는 사실 참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어 오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지고 지금은 폐지가 됐었지요.

그런데 최근에 대기업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이 된다거나 또는 일부 동반성장이라든가 또는 상생 문제가 제기되면서 대기업에 대한 자제 촉구 이런 것이 결국은 출자총액제도의 부활로 정치권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양면을 다 생각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정상적인 성장이나 심지어 성장동력 확충이든 건전한 투자를 저해할 기업 및 국민 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이 출자총액제도를 다시 부활시킬 경우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감안하고, 그다음에 대기업의 무분별한 기업 확장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조치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양자를 조화시키는 선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출자총액제도를 부활한다 하는 식의 결정은 사실상 경제의 정상적인 운영을 감안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金世淵 委員 그 수단이 출자총액제한제도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현재 최근에도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대기업의 무한 확장,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아주 엄격한 자세를 가지고 대기업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이런 판단들을 잘 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순조롭게 청문 과정이 다 통과되

고 나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실 기회가 생기시면 그때는 반드시 이런 인식에 대해서 확고하게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나름대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보다는 그때 가서 다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국무회의라든가 이런 데 결정이 될 경우에 논의에 가담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金世淵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를 마치고 보충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에 한하여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순서는 주질의의 원래 질의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시에 운영위에서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이 있습니다. 3시는 의결정족수가 되게끔 위원님들이 자리를 지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안규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민주당의 안규백입니다.

마이크 넣어 주세요, 마이크.

시간을 다시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명규 하십시오. 편하게 하십시오.

○안규백 위원 민주당의 안규백입니다.

지난 2월 9일 본회의에 출석을 하셨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했습니다.

○안규백 위원 이날 조용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날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제가 보니까 몇 가지 법안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출석은 하셨으되 찬반 의사 표시는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그 투표는 제가 했습니다. 투표는 하고 그다음 투표는 하지 못하고 갔습니다.

○안규백 위원 아, 그러니까 다른 투표는, 다른 법안에 대해서 하셨으되 조용환 재판관에 대해서는 안 하셨다는 얘기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안규백 위원 이날 조용환 재판관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저는 그것은 의원들이 자기의 각자 양식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 후보자에 대한 부결의 이유가 뭔지 또는 그것을 사실 상세하게 분석이나 이것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미 6개월 이상, 작년 6월부터 나오던……

○안규백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2월 9일이 이미 후보자께서 특임장관으로 내정된 날이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현재 정부가 소통을 중시하고 특임장관의 제일 덕목이 소통을 위한 장관이라고 봤을 때 고흥길 후보자께서는 조용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미 내정된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에 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정이 됐다는 것하고 정식 임명이 됐다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제가 내정자의 위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임명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든가 부결이 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얘기하고 역할을 하고 할 만한 이러한 룸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안규백 위원 룸이 없는 게 아니고 이미 지난 8월, 작년 9월 이후에 특임장관이 계속 공석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장기간 공석을 메우기 위해서는 내정되신 분이 이런 가장 중요한 정국 현안에 대해서 어떤 소통과 조정 역할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특히 특임장관의 철학적인 문제가 담겨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역할이 없었단 말이에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제가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고, 또 할 위치도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규백 위원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에 특임장관에 임명되신다면…… 우리 민주통합당이 다시 조용환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만약에 특임장관이 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

해서 여당 의원들을 설득할 용의가 있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저는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 19대에 다시 한번 제출하겠다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그게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에 대해서 제가 그 문제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에서 그러한 결정을 하시고 제출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신중한 검토와 제 역할을……

○안규백 위원 후보자님, 자동차에 백미러가 있는 것은 뒤를 반추해서 앞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동차의 기본적인 개념은 앞으로 질주하는 건데 왜 백미러가 있습니까? 그러면 백미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반추해서 앞으로 가라는 것이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속에서 항상 이어져 가는 건데 그 가정은…… 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제가 특임장관으로서 그 철학과 역할에 대해서…… 특히 후보자께서 오늘 가장 강조하신 키워드가 "소통을 하겠다" 이런 말을 자꾸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소통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소통을 위해서 특임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지 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에 대한 가결 여부를 싸고 특임장관의 역할을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사실 아직 특임장관 임명도 안 된 상황이고, 총선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또 과연 야당이 그대로 제출할지…… 당에서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여러 가지 시의적으로나 또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나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규백 위원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후보자님께서, 대통령의 측근 비리가 연이어 터지기 때문에, 지금 세다가도 내일 아침에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셀 수가 없는 이런 지경입니다.

도대체 몇 명이나 연루된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근 비리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저도 지켜보는 사람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규백 위원 아니, 지금 도하 신문, 언론에서 온 국민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써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이명규 예, 1분만……

○안규백 위원 도하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다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왜 유독 후보자께서만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세 살 먹은 애도 다 지금 알고 있는 실정인데 후보자께서 그것을 모르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은 기본적인 시대 상황 인식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그것은 조금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또 제가 그것을 무슨 추측을 해 가지고 어디까지 갈 거라든가 몇 명 선이 됐다든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정부 측에서 이러기 때문에 외교부 관리들까지 이른바 CNK 주가 조작에 연루되어 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지금 창출하고 있고 측근 비리가 창궐하면서 도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까지, 정부부처 공무원들까지 이렇게 지금 창궐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그게 바로, 공무원 비리가 거기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연결을 직결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다시 또 여러 가지 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생각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안규백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英娥 委員 송파갑 출신 박영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부가 2008년부터 공공기관 민영화, 지분 매각, 통폐합 등을 통해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朴英娥 委員 그중에서 일부가 어떤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천공항 민영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속 세계 1위의 평가를 받고 있는 인천공항이 왜 굳이 공기업으로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인지, 민영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국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절차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민영화 대책은 원점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특임장관실에서 조정 능력을 발휘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체적인 사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태가 있다면 특임장관실의 영역이 아닌가 하는 질의입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라든가 또는 다른 국영 공항이라든가 이런 문제의 민영화는 사실 공공부문의,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또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금 사실상 국민 여론이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것을 언제까지 민영화를 하겠다든가 이렇게 결정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거치고 보다 더 정밀한 타당성, 예타를 거쳐 가지고 결정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임장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만약에 소임이 맡겨진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英娥 委員 본 위원이 인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선진화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건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는 지난 1988년에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한 선수들의 숙소로 먼저 이용하고 그 이후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했고 그때 이 입주자들이 성금도 냈는데요, 성금 액수가 432억 원이었습니다. 432억 원은 그때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민간이 모금했던 전체 기부금 2000여 억 원의 20% 정도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게 1985년, 86년 시점이었고요.

그때 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부대시설로 수영장과 체육시설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경기가 끝난 이후에 그 스포츠시설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포츠센터 자체도 기부금으로 건설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당연히 이게 법적인 여부를 떠나서 주민들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올림픽선수촌 스포츠센터가 바로 공공기관 선진화 사업의 대상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지난 2010년에 매각이 됐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연간 수만 명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설명회라든가 이용자 의견에 대한 반영이 전혀 없었고요. 그다음에 13차례 유찰을 거쳐 가지고 헐값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그것을 서울시로부터 받아 가지고, 서울시로부터 샀습니다. 서울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당시 상당히 싼, 그 432억 원을 기부한 이, 이 스포츠센터로 해서 그때 만들어진 그, 이 스포츠센터의 매각대금이…… 그 당시 32억 원에 체육진흥공단에 매각을 했고 국민체육공단은 선진화계획 때문에 2010년에 205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어디다 매각했느냐 하면 부동산사모펀드에 매각했어요. 공기업 재산이 사모펀드에 매각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은 이 정부의 선진화 기본계획이 도대체, 국민들의 생활 밀착 시설인 이것을 몇 사람의 사모펀드들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써야 되는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100%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사모펀드에 불법자금이 유입되어서 해당자가 지금 구속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게 송파구 일이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기재부장관, 문체부장관, 국민체육공단이사장, 대통령실 그리고 특임장관을 찾아가서 이 매각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이것을 되돌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해결을 부탁드렸습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규 예.

○朴英娥 委員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지금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1년을 밤새워서 그 센터를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사모펀드

운영자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선진화계획의 실패 사례가 바로 올림픽선수촌 매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부가 잘못했으면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게 정부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3개 부처가, 국민체육공단을 포함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기재부 측은 선진화계획 이게 잘못됐으면 잘못을 시인하고요, 인정하고. 국민체육공단이 그 매각대금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되사서 국민체육공단의 이름으로 소위 우리 주민들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단이 국민체육시설을 운영하면 안 됩니까? 지금도 1년에 수백 개의 시설을 지자체에 만들어 주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 관계상.

한편에서는 수천억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서 주고, 한편에서는 팔아 가지고 일부 개인한테 그야말로 수백억의 이익을 주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국민이 안다면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기 특임장관님께 제가…… 이 부분 특히 선진화계획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우리 정부의 부끄러운 오점이 됩니다. 특임장관으로 부임하시면 이 부분을 반드시 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참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최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잘못한 것은 확실하게 국민한테 이야기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남은 1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특임장관의 역할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올림픽시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번 정부 측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그 경위나 이런 것은 아마 지금 박 위원님도 대충은 아시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박 위원님이 파악하고 계신 팩트(fact)하고 제가 추후에 조사한 내용하고 다른 점이 있는지 비교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다시 하고, 해결을 같이 박 위원님과 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그 문제를 접수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거기에 대한 뚜렷한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걸 갖다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英娥 委員 위원장님, 30초만 제가 마무리 발언할 테니까 마이크 좀 넣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명규 아니, 다음 보충질의……

○朴英娥 委員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고요…… 기재부 측에서는 '잘못됐지만 잘못한 것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여태까지 1년 반 동안 왔습니다. 이게 바로 정부 소통 부재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오점을 남기지 마시고요. 장관님으로 취임하시면 앞장서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사안의 해결이 아니라 공공기관 선진화의 실패 사례로 꼽히는 것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갑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기갑 위원 후보자님, 제가 오전에 우리 황영철 위원께서 아파트 시세차익에 대해서 질의를 여쭈어 봤을 때 전혀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후보자님 우리 사회의 양극화 중에 전세난민, 집 없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알고 계시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알고 있습니다.

○강기갑 위원 무주택 서민들의 정책이 사실은 이 MB 정권에서는 실패했다, 주로 건설자들이나 다주택자들에게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고 세금 혜택을 주고 이게 양극화에 또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후보자님 부동산 관계를 제가 좀 훑어봤더니 83년도에 잠실에 43평짜리 2억 5700만 원에 구입을 한 건데 지금 10억에서 11억 시가를 하고 있는데 7억의 시세차익을 사실은 지금 보셨더라고요. 89년도에 분당에 59평짜리 3억에 구입해 가지고 지금 이것도 시가가 거의 한 10억, 현재 시세표에 보니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 7억. 또 부인 명의로 분당에 2001년에 구입한 오피스텔도 1억 7000만 원인데 지금 2억 한 4000만 원, 7000만 원…… 자제분 것은 제가 여기에서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합하니까 거의 한 14

억 7000만 원, 물론 자제분 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20억의 시세차익을 지금 보셨다,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하였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명박 정부 전셋값이 폭등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이렇게 후보자와 같은 이런 다주택자들 또 땅을 많이 소유하고 어떻든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땅값과 집값은 올라가고 따라서 전셋값도 올라가고 돈 없는 사람은 30년을 월급을 받아도 집을 한 채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후보자로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2006년도 12월에 후보자가 보유한 잠실 아파트를 장남에게 증여하면서 12억 시세 신고를 했는데 이것이 실거래가 신고였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몇 군데 들어가서 봤습니다마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보면 10월부터 11월, 12월에는 더 올라갔습니다. 거의 40평 규모로 해 가지고 13억 5000만 원에서 15억 8000만 원까지, 여기에 층수가 3층이라는 이유가 있는데 그 3층에 해당하는 자료도 저희들 다 훑어봤습니다. 사실 후보자, 또 동료 의원이시기도 한데 이런 부분을 거론하기가 상당히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철저하게 이 부분을 다 검토를 했는데도 적어도 이것은 평균가격 14억 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도자료를 낸 것이고요. 14억을 신고를 했을 때는 430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전혀 문제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장남에게 증여를 하실 때 부담부 방법으로 증여를 하셨더군요. 그렇게 하니까 그게 한 5000만 원 정도, 부담부 아니고 일반 증여를 했을 때와 차이가 5000만 원 정도 또 이것은 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냈더라고요. 그래서 부담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자녀분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 5억짜리를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그렇습니다.

○강기갑 위원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후보자님 오피스텔까지 세 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서 부담부 방식으로 한다는 것도 이것은 세금을 적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두기 위한 그런 일환이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명규 예.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지금 강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많거든요. 이게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야, 그 신임 장관내정자가 20억의 부당이익을 봤다더라'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제가 시간이 가도, 강 위원님 시간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고 그냥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규 예, 지금 강 위원님 질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답변하시지요.

○강기갑 위원 위원장님, 이게 5분 질의입니까?

○위원장대리 이명규 예, 보충질의기 때문에 5분입니다.

○강기갑 위원 나중에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명규 예, 다시 재보충질의 하시면 됩니다.

(이명규 간사, 노영민 간사와 사회교대)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강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상당수는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시가가 12억이냐 14억, 15억이냐 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큰 갭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3억 차이라는 게 양도소득세와 또 증여세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억이라는 것은 제가 신고를 하거나 임의로 결정한 게 아니라 당시 주변의 아파트 거래가격, 국토해양부의, 그것을 가지고 세무서가 다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세무사가 등기를 하거나 이전 수속에서 12억이다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세무서에서 납득이 됐기 때문에 아파트 세금액이 결정되는 겁니다.

제 아파트는 말씀하신 대로 3층이고, 3층은 아

니지만 그 아래층은 11억 9000만 원에 사실상 매매가, 거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을 가지고 세무서에서 12억으로 추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 하시는 말씀도 사실과 좀 다릅니다. 아파트 가격이 그때 계속해서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매매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제가 잠실 이외에 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봤다는데 시세차익이라는 것은 제가 매매를 했을 때 시세차익이지, 그때의 신규 신도시 개발하면서 제가 분양신청을 해 가지고 10 대 1의 경쟁에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당첨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때 그게 말씀하신 대로 14, 15억까지 갔었지만 지금은 10억에서 11억 정도 갑니다.

그리고 아파트 시세라는 것은 시기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너무 요동을 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시세차익을 봤다, 시세차익이라는 것은 제가 그것을 매매했을 때 시세차익이지 현재는 시세차익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기는 다소 맞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직을 분당에서 오래 하면서 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제가 하나, 그것도 분양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제 후원회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고, 제가 그 오피스텔을 2003년에 구입을 해 가지고 무슨 임대사업을 했다거나 이런 것이 전혀 아니고 현재도 제가 쓰고 있는 그러한 사무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몇십억을 봤다 하시는 말씀은 가정해서 판다면 시세차익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세차익이 생기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지 되고 당연히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은,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실제 현실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영민 다음은 김재윤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의결정족수를 고려해서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4시59분)

○위원장대리 노영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겠습니다.

---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5.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송민순·김동철·김재윤·최철국·노영민·양승조·주승용·강기정·장세환 의원 발의)(계속)
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박은수·강창일·백원우·전현희·최영희·김우남·홍재형·이석현·최재성·최규식·최문순 의원 발의)(계속)
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정희·조승수·김우남·유원일·유성엽·박선숙·신학용·곽정숙·홍희덕·권영길·김재윤·강기갑 의원 발의)
1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김춘진·박은수·양승조·장세환·송민순·김영진·김우남·이윤석·이정희·김성순·송영길·김성곤·김상희·우제창·유성엽·김진표·이시종·이용삼·안효대·홍희덕·김재윤 의원 발의)(계속)
1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권택기·유성엽·조경태·김부겸·김재윤·김성수·김춘진·박순자·김충조·김정훈·황우여·박선영·김영진·송민순·이미경·김금래 의원 발의)
1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 의원 대표발의)(윤영·정희수·윤석용·이화수·허천·노철래·강길부·김성수·손숙미·성윤환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노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안과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총 7건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총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은 이명규 위원과 본 위원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이며,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의 국가인권위원회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하여 보고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이명규 위원 나오셔서 서면동의자를 대표하여 4건의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계속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 이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과 입법예고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신설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소관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되어 예산안 등 중요 안건에 대한 심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국정감사를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정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매년 첫 임시회에서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등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인사청문회법상의 경과보고서 송부 관계 규정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19일 국회법을 개정하여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의무화하면서 입법예고의 방법 등을 국회규칙으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입법예고를 국회공보, 국회 홈페이지 또는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하도록 하고, 둘째 입법예고기간은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0일 이상,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이상으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된 의견 중 중요 사항은 소관위원회 전문위원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지난해 12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세연 의원안 등 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심의 의결하고 6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90일 이내에 이행계획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안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안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안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안은 제안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총 6건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을 채택함에 따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자구 수정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국무위원후보자(특임장관 고흥길) 인사청문회(계속)

(15시07분)

○위원장대리 노영민 이것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 위원 후보자님, 방금 전에 강기갑 위원님 질문에 우리 후보자님이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후원회 사무실로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김재윤 위원 고흥길 우리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신데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후원회 사무실로 쓰면 정치자금법 위반 아닙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아닙니다. 그것은 후원회 사무실 그 명의가 지금 와이프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원칙으로 말하면 거기에다가 임대료를 내야지 되는 건데 제 와이프의 소유기 때문에 임대료는 안 내고 제가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겁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니까 그게요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건 우리 후보자님 명의로 되어 있건 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사무실 임대료를 내고 쓴다면 또 그것은 따져볼 만한 일이지만 아무리 사모님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을 하지 않고 무상으로 쓰게 되면 정치자금법 위반 아닌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관위에다가 그 사무소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정치자금으로 관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한번 따져서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박희태 후보 측의 돈봉투 살포사건이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2008년 전당대회 당시 우리 후보자께서는 박희태 후보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맡지 않았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저는 신문에 저와 부산의 정의화 의원이 고문으로 돼 있다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시에 제가 박희태 후보의 전당대회 준비 사무실을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렇다면 박희태 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없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리고 혹시 다른 후보 측으로부터 도와 달라고 하면서 봉투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그런 적이 없습니다.

○김재윤 위원 박희태 후보 측 말고 다른 후보 측에서도 금품을 살포했다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듣거나 경험한 적은 없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그런 얘기를 들은 바도 전혀 없고 또 경험한 바도 없습니다.

○김재윤 위원 우리 고흥길 후보께서 가톨릭 신자이시기 때문에, 한국 주교회의 의장이신 강우일 주교님께서 한미 FTA가 날치기 처리된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의 초국적 자본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어 이제 겨우 발전도상국을 벗어나려는 한국을 휩쓸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땅의 농어민들은 버티어 살길이 없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이 땅의 농어민들이 버티어 낼 길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한미 FTA가 농민·어민들이 버티어 낼 길이 없을 정도로 큰 타격을 주는데 한미 FTA 비준

안 날치기 처리에 또 찬성했던 분으로서, 한미 FTA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시고 계시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저는 뭐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체결되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김재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 땅의 농어민들이 버티어 낼 길이 없는 이런 실정에 대해서 책임감 느끼지 않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저는 그 강우일 주교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우일 주교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종교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의 존경을 받는 분 중의 한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말씀이 전부 옳고 그분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최근에 4대강 사건에 관해서 천주교의 다른 지도자들로서는……

○김재윤 위원 지금 4대강 문제도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이명박 정권이 무조건 무한경쟁만을 내세우다 보니까 무한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이 나라의 백성의 혼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을 파괴하고 있단 말이에요.

4대강도 지금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분노를 사고 있습니까?

그 많은 예산 투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강의 생명을 파괴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 FTA도 과연 왜 미국 상원이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미국 하원이 박수를 치고 환영하겠습니까?

(노영민 간사, 이명규 간사와 사회교대)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때, 추진할 때는 저도 직접 보커스 상원의원도 만났습니다.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한미 FTA 미 상원·하원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까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미국에게는 이익을 주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고통과 절망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중 FTA는 한미 FTA랑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1차산업을 초토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한미 FTA 추진에 대해서 특임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저는 한미 FTA가 체결이 되어야 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효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김재윤 위원 한중 FTA요.

한중 FTA를 물어봤습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한중 FTA는 이제 뭐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황이니까요.

그것도 신중하게 협의가 시작이 되어야 되고 또 좋은 결론을 맺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재윤 위원 좋은 결론 맺기를 바란다는 것은 추진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추진은 해서 결과를 봐야지요.

그건 협상 결과를 봐야지요. 지금 뭐라고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재윤 위원 예,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민 위원 예.

다시 한번 우리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미디어법 직권상정 날치기 처리와 관련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사과의 뜻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하신 말씀으로는 미진하고 부족합니다.

따라서 정말 국민 앞에 당시의 위원장으로서 그 위원장직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바로 또 18대 국회를 관통해서 여기까지 파행으로 이끌어져 왔던 18대 국회의 그 파행의 시초의 사건으로서 저는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후보자께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 회의에서도 분명하게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법의 처리에 대해서 내정자인 저로서는 그 소신에 변함이 없고 지금도 그것은 빨리 처리가 된 것이 잘된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여야 간의 완전 합의에 의해서 순리적인 상정과 순리적인 협의……

의장 직권에 의해서 그게 직권상정해서 또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로서는 안타까운 일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더 좋은 방법으로 여야 간에 완전 합의하에서 순서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고 또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 법의 시급성이라든가 당위성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노영민 위원 소신을 그렇게 갖는 거야 뭐 우리 후보자 마음이지요.

그렇지만 그걸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국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 방송이 지금 아니고 6개월 후에, 1년 후에 개국했다고 그래 가지고 대한민국이 망합니까? 대한민국에 실업대란이 납니까?

제가 후보자께서 그동안 했던 발언에 대해서 한번 쭉 스크린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참 저로서는 좀 납득할 수 없는 발언들을 계속해 오셨어요.

이게 보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전두환 대통령을 칭송하는 글이 참 도가 넘어가는, 아주 그렇게 또 칭송을 했고요.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민정당 대표위원으로 새로 취임할 때는 또 아주 거의 용비어천가를 쓰시고 그 이후에 87년 6월 항쟁에 대해서는 “악몽과도 같았던 작년 6월의 소용돌이”, 물론 87년 6월 항쟁 그때 당시라면 혹시 이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1년 이후에도 “악몽과도 같았던 작년 6월의 소용돌이”,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고흥길 후보자께서 저는 이 정도까지, 어떻게 이런 글을 쓰실 수 있으셨을까, 참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건 완전히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비어천가’고 이게 노태우 대통령한테는 완전히 또 ‘노비어천가’고, 이것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거기에다 ‘삼성 X파일’인가요, 그 녹취록? 그 녹취록이거든요.

거기서 보면 또 아까 우리 김재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열여덟 장, 이게 나오는데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부인은 하셨지만 국민들은 그 부인을 믿지 않을 것 같아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노영민 위원 예.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전두환 대통령 시절, 소위 말해서 5공 시절입니다. 5공 시절에 기자들의 또 우리나라 신문의 보도 경향이라든가 보도 환경이 어떻다 하는 건 아마 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시 83년 3월에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단식투쟁을 하셨습니다. 단식투쟁을 23일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 어디에도 ‘김영삼 대통령’이란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고 ‘단식’이라는 말은 더군다나 더 없었습니다. ‘어느 재야인사의 식사 문제’라는 1단짜리 기사로 보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청와대 출입기자는 단 13명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5공 시절에. 그러면 중앙일보를 제가 대표해서 나가는 그 열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 당시에는 보도지침에 의해서 엄격하게 취재가 제한이 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5공의 언론 환경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쓴 언론이라는 건 그야말로 현장을 지킨다는 그러한 의미밖에는 사실 없었을 정도의 암흑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러한 환경을 더 견딜 수 없다 해서 언론계의 해외연수를 신청을 해서 언론연수를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구한 해명이나 변명을 제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언론계 생활을 계속했고 언론인으로서 정치부장, 사회부장, 외신부장, 편집국장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공 시절에 신문기자를 한 걸 조금도 자랑스럽다거나 그걸 무슨 지금 미화하거나

이럴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언론인으로서는 부끄러운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다음에 X파일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전적으로 사실과 다르고 또 그것은 이미 도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직 당국에서도 전혀 문제를 삼지 않고 무혐의 처리로 해 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로서는 여기서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노영민 위원 시대 상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답변만 너무 오래하셔서.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어려웠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 상황에서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 간 많은 학생들과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참여연대가 그 당시에 X파일 가지고 후보자를 금품수수의 공범으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이학수, 홍석현 등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었거든요. 그런데 검찰로부터 소환 수사 받은 적이 있었나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전혀 없었습니다.

○노영민 위원 없었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전화 한 통화 없었습니다.

○노영민 위원 검찰이 왜 그 당시에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 또 사실 고발을 당했다는 것도 제가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노영민 위원 이런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용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아니고요. 그 증거의 수집이 불법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안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후보자가 이 X파일에 나왔던 그 내용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정리된 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표 위원 인천 부평을의 민주통합당 홍영표 위원입니다.

지금 아침부터 우리 고흥길 후보자에 대해서 미디어법 관련한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미디어법이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 고흥길 후보를 상징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마는, 지금 미디어법을 그렇게 본인이 행동대장처럼 나서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 이후로 당시에 말했던 것들이 전혀 거짓말로 다 드러났거든요.

'일자리를 뭐 2만 1000명으로 늘린다', '생산유발효과가 2조 9000억 원이다' 이런 것을 근거로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방송콘텐츠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이렇게 그 미디어법을, 일부 보수 신문과 재벌들에게 종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미디어법을 한 결과가 지금 언론시장 자체를 굉장히 후퇴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 답변하시면서 일관되게 지금도 "그 당시에 미디어법이 없으면 안 되는 어떤 시급한 상황이었고 꼭 필요했다. 당위성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사실 그렇습니다.

○홍영표 위원 정말 시급했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개방 추세에 있고 지금 모든 게 개방 아닙니까? 신문·방송·광고 시장이 다 개방이 되는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 미디어법의 가장 골간이 뭡니까? 방송법의 골간이 방송과 신문의 벽을 갖다 허무는 겁니다. 벽을 허물어서 실질적으로 자본이, 인쇄매체가 방송매체에 대해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요체라고…… 그 아주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미디어의 균형발전 또 미디어 산업의 선진화 내지는 현대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도 오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공중파 방송에 의해서 독점되다시피 하는 뉴스의 다원화, 방송 뉴스의 다원화랄까, 이러한 국민의 편익 증진, 이러한 차원이 다 감안된 거지 그게 그 당시에 무슨 어떤 특정 정파나 특정 정부나 이것을 옹호하고 또는 위해서 하는 그러한 법 개정은

아니었습니다.

○홍영표 위원 제가 이 답변을 들으면서 참 화도 나고 절망감을 느낍니다.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두고도 견강부회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특임장관을 하면 이 나라의 국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금 들여서 특임장관실……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부정선거 하는 데나 끼어들고 지난번 또 이재오 특임장관은 되지도 않는 헌법 개정하겠다고 그 난리를 쳤지요? 어떻게 됐어요? 다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해서는 안 될 일들만 골라서 하다가 물러나고 그리고 지금 이 미디어법처럼 명백히 우리 언론시장을 완전히 파괴하는, 언론계를 파괴하고 언론의 공공성이나 공정성 이런 것들을 무너뜨린 그런 법을 주도해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참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미디어법 관련해서 지금 몇 가지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이게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들에게 인사한 것 아닙니까, 이 MB 정권이. 그리고 신문·방송 겸영이라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나마 우리 언론의 어떤 다양성이나 공정성을 파괴하는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규 예.

○홍영표 위원 저는 고흥길 후보님은 보면 살아오신 것도 그렇고 참 우리 사회의 잘못된 지식인의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없이 양지를 찾아다니고 권력을 좇아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한평생을 살아오셨는데 그런 분이 야당·시민사회와 소통을 하는 자리의 특임장관으로 임명됐다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그 말씀은 잘 참고로 듣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동의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김진표 위원입니다.

우리 고흥길 후보님께 특임장관이 되셔서 축하를 드려야 할 텐데 저도 임기 마지막 정부의 청와대 정책수석을 하면서 경험을 했는데 이게 축하를 과연 드려야 될 자리인가 하는 생각이 더 앞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조직법 제17조는 특임장관의 임무를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그리고 대통령의 명을 받거나 총리가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임장관을 1명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맞습니다.

○김진표 위원 이번에 후보로 지정될 때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는데 '뭐를 좀 맡아서 해라'라고 명을 받으시거나 부탁을 받으신 게 있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특별히 명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아마 제가 임명장을 받게 되면 티타임이라도 갖게 될 것이고 그때 아마 그러한 지침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진표 위원 총리로부터도 별다른 게 없었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런 것이 있어야, 국무위원으로서 특임장관으로서 우리가 청문회를 하려면 후보가 무슨 일에 역점을 두고 하겠다, 이게 특임이라는 게 말하자면 무임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국민을 대변해서 그것을 물을 텐데요.

그러면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이 정부가 좀 제가 보기에는 국회 청문회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든가 아니면 특임장관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나 임명하면 대통령이 사병처럼 부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저는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장관이라든가 심지어 총리까지도 내정을 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즉 임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진표 위원 알겠습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국회에 청문회 과정을 두는 것 자체가 그런 감안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표 위원 그러면 국민들에게 특임장관으로

서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게 하는 임무가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특임장관후보로서 만일 청문 과정을 거쳐서 임명을 받으면 무엇에 역점을 두어서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저는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특임장관의 소임으로서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소통은……

○김진표 위원 알겠습니다. 소통이라는 얘기를 아까도 하셨는데 소통이라면 누구와 누구를 소통하게 하는 건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당·정·청은 물론이고 야당 또 사회단체 및 재야 모두, 우리 사회의 전 분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런 점에서 저는 후보께서 그동안 언론계에 근무한, 한 30여년을 근무했고 또 정치권에 들어와서 모두 몇 년 계셨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15년 있었습니다.

○김진표 위원 15년 계시면서 특히 이명박 현 정권 들어와서 국회에서 여러 직책을 수행하면서 그동안 보여 주신 것은 이게 소통을 잘하는 그런 경력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거지요. 예를 들면 문방위원장 재임할 때 온 야당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소위 언론악법이라고 반대했던 그 법안을 여러 차례 말로는 날치기 처리 절대 안 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행동은 계속 단독 강행 날치기 처리로 귀결이 됐는데 이런 가장 중요한 상임위원장으로서 언론악법이라고 하는 이런 법안도 여야 간의 협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분이 지금 남은 1년간 과연 누구와 누구를 소통하겠다는 것인지, 여당과 대통령을 소통하는 것은 잘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지금 경력으로 보면. 그러나 야당이나 국민이나 시민사회단체나 그 국민을 대변하는 언론과의 소통을 과연 잘하실 분인지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 많은 야당 위원들은 의문이 큽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좀 얘기해 보시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지금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과거에 문방위원장으로서의 제 역할, 그러나 그것은 그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위치였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특임장관에 임명이 되면 저는 아주 정말 새로운 각오로 야당은 물론이고 재야 또 사회단체, 어느 부분까지 다 골고루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시도를 하면 특임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표 위원 제가 마지막……

○위원장대리 이명규 예.

○김진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제가 김대중 대통령 정부의 마지막 해에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지막 1년 이게 통상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레임덕이 밀려오는 시기이고 또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이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대통령, 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2개의 큰 선거를 공평하고 중립적으로 치러 내서 어떤 쪽이 승리하든 정권 이양을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잘 물려주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 후보께서 생각과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특별히 능력이 있다든가 적임이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으면 얘기 좀 해 보시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저는 정권 마지막 해의 그러한 일에 대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각료 또는 전 공직사회가 그런 각오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도 그러한 일의 일익을 담당하도록 기회가 주어지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특임장관에 임명이 된다면 우리 김 대표님을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당시의 그 좋은 경험을 들어서 참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우리 야당과 국민들이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은 고 후보가 언론악법 불법 날치기의 문방위원장으로서 주역을 맡았었다, 그리고 2008년도 한나라당 돈봉투 전당대회에서 박희태 후보 캠프의 고문을 맡았었고 또 지금의 새누리당, 옛날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재임하시면서 예산안을 또 날치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결과가 지역의 균형예산은 줄이고 소위 형님예산이라고 불리는 특별하게 여권에 관계있는 사람들의 예산만 늘어났다라는 평을 받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혼자서 책임을 다 몰아 쥐고 정책위의장을 그만두고 하셨는데, 그러한 경력 때문에 과연 이 시기에 이런 후보가 그런 선거를 공정하게 치러내고 야당과 시민단체하고도 잘 소통하는 그런 일을 맡아 할 적임자인가에 대해서 이번 인사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

다.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혹시 임명이 되더라도 잘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명심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그다음 순서는 박우순 위원님, 이윤석 위원님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낙성 위원 충남 당진 출신 자유선진당 김낙성 위원입니다.

특임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아까 여러 번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당·정·청의 어떤 정책협의회에 주도적으로 참석하고 이끌어가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지요, 그것이?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맞습니다.

○김낙성 위원 그런데 요즘 복지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면서 여야가 복지공약 따라하기와 또 아니면 말고 식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새누리당은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태도를 180도 바꾸어서 초·중·고생에게 아침식사까지 제공하겠다든가 감세 기조를 포기하고 부자증세를 위한 조세제도를 개편하겠다든가 재벌을 양극화의 주범으로 몰아 이를 개혁하겠다는 것 등 어떻게 보면 야당의 공약 따라하기 행태를 보이고 거기에다가 방위력 저하는 무시하고 사병 월급을 한꺼번에 4배 인상해서 월 40만 원을 주겠다든가 경상도표 대신 이번에는 전라도표와 경상도표를 몽땅 잡기 위해서 서남권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아니면 말고 식 공약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재정이 아까 제가 오전 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1000조가 넘어가는 이런 상태에서 재정적인 뒷받침 없이 그냥 마구 무상 이런 쪽으로 복지정책을 펴나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뒷받침 없는 복지는 사상누각이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당·정·청 정책협의회를 주도해 나갈 특임장관으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 복지정책을 다루어 나갈 것이며 대통령을 어떻게 보좌해 나갈 것인가 간단히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저는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정책에 있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정의 뒷받침이 가능하냐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것은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완전 합의는 안 되더라도 아주 러프한 수준으로 해서라도 그것이 얘기가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 등은 제가 짧은 기간 정책위 의장을 한 경험으로 볼 때 과연 그 재정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 자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야가 같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 특히 복지정책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무조건 부인을 한다거나 실현성이 없다고 일거에 매도하거나 또 비판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에 그러한 점도 완전히 원점에다 놓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신중한 자세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그러한 풍토 조성 또 특임장관으로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중간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낙성 위원 왜냐하면 국가부채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299조에서 448조, 10대 공기업이 120조에서 301조 이렇게 부채가 눈덩이처럼 국가부채가 늘어 나가는데 국가부채를 늘려가며 복지정책을 펴나간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도 바람직하게 생각을 않고, 국가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을 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재원 마련도 안 되는 복지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한 건데요.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비속의 기부금 및 후원금 납부내역을 보니까 후보자께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 달에 10만 원씩 네 번에 걸쳐서 40만 원을 이렇게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왜 이게 연말·연초에 갑자기 기부를 이렇게 한 것인지 특별한 뜻이 있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그게 연말·연초에 넣은 게 아니라요, 제가 매월 14만 원씩 한국혈액암협회, 백혈병 환자들을 위한 기금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그게 4개월분을 해서 얼마가 됐을지 모르겠고 그다음에는 제가 성당에 내

는 것, 그 밖에 적십자회비 이런 것을 다 합해서 이것 될 건데, 그것은 40만 원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아마 그걸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낙성 위원 이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특임장관실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하고 대비해서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그것은 전혀 상상도 못 할 얘기입니다. 제가 특임장관이 될 것으로 생각을 안 했었고 또 그것을 생각해서 기부행위를 하거나 이렇게 할 사람은 못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주질의 순서대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정선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신청하셨는데 순서대로 하면 이정선 위원님, 박우순 위원님, 이화수 위원님, 이윤석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저는……

○위원장대리 이명규 지금 보충질의를 또 하시겠어요? 당연히 신청을 안 하셔 가지고 지금 안 들어 있습니다.

○강기갑 위원 저도 보충질의……

○홍영표 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규 그렇습니까?

○이윤석 위원 저 본질의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낙성 위원 본질의는 다 끝났어.

○위원장대리 이명규 강기갑 위원님은 아까 보충질의 하셨지 않습니까?

○강기갑 위원 다 보충질의 했지요.

○위원장대리 이명규 보충질의 다 하셨잖아요?

○박우순 위원 저만 빠졌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규 그러니까 지금 추가질의를 안 하신 것이지, 보충질의까지 하셨잖아요?

○김재윤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규 일단은 지금 이정선 위원님 그리고 박우순 위원님, 이화수 위원님, 이윤석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하고 그다음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선 위원 박 위원님 먼저 하신다는데……

○위원장대리 이명규 그렇습니까?

그러면 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순 위원 원주시 박우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4대강에 대해서 4대강 사업이 잘 한 것이다, 그저 그렇다, 잘못한 것 같다, 어떤 것 같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저는 잘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우순 위원 저하고는 좀 다른데, 지난 2월 10일 부산고법에서는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위법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우순 위원 500억 이상 규모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강행을 했지 않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박우순 위원 그래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결국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안 해도 된다고 보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지금 부산고법에서 예타를 하지 않아서 위법성을 판결한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소송이 지금 걸려 있는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여섯 가지가 그동안에 판결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 유역의 1심 판결, 또 한강 1심 판결 및 2심 판결, 금강의 1심 판결 및 2심 판결, 영산강의 1심 판결에서는 이것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래서 그 대법 판결을 좀 지켜보아야지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순 위원 지금은 하여간 이 시대의 화두는 토건업에서 문화, 소프트웨어 쪽으로 나가서 삶의 질 향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소통을 하시면서 그런 삶의 질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문화 기타, 예를 들어서 유기농 또 그런 식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주력을 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저도 삶의 질 향상,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에 대한 박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유기농산업이라는 것이 강가에, 옆에다가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한강 상류에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몇 명의 유기농 업자들을 위해서, 물론 서민이고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업권을 박탈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 때문에 4대강 유역에서의 유기농을 허용을 해야지 된다는 그런 논리가 있는데, 박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조금 다른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유기농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우순 위원 예, 아까 언론에 대해서 후퇴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현 정부 들어서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 MBC, KBS, YTN의 낙하산 사장 임명, '돌발영상'과 'PD수첩', '추적60분' 등 심층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위축, 신경민 등 비판적 코멘트를 하던 앵커의 경질, 공적 의견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소셜 엔터테이너(social entertainer)들을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는 등 언론 독립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후보자께서는 30년 이상 언론인으로 생활하시고 문방위원까지 하신 언론 분야 전문가이신데 현재 언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저는 간혹 MB 정권 등장 이후에 한국의 언론 사정이 매우 악화되었다, 환경이 악화되었다는 지적을 하시는 얘기가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오늘 같은 방송의 구조라든가 방송의 메커니즘, 또 언론사회 전체를 볼 때 정부 권력이 언론을 탄압한다거나 언론을 조작을 한다거나 또는 특정 언론인사에 탄압을 가한다거나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과연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그러한 지적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언론인의 양식을 걸고 사실상 그것은 너무 과도한 비판이고 또 사실보다는 조금 더 과대평가된 얘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박우순 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정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정선 위원 후보자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언론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의 민주화는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문인으로서 생각하신다면?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저는 사실상 언론이 누릴 수 있는 자유, 언론의 자유가 침해를 받거나 그것이 외부로부터 구속을 받는다든가 압박을 받는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영상의 압박을 받는 일부 언론기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정부 권력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선 위원 '언론' 하면 공평성과 또 국민들을 대변하는 이런 언론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언론의, 후보자께서 하셨던 미디어법에 의하면 언론사들이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국민의 선택이 앞으로 그 언론사들을 살리고 또 그 언론사들이 경쟁력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언론사들의 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어떤 언론사들을 선택하고 어떤 내용을 요구하는지, 거기에 부응하는 언론사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언론사들은 도태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질적인 문제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편파성 없는 그런 언론에 대한 가이드를 정하고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인으로서?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물론 언론이 발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여건을 만들고 도와주는 것은 정부의 몫이지만 그러나 언론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소위 말해서 독자라든가 시청자의 사랑을 받고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은 언론 스스로의 자체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부 언론기관의 내부 노조와 사측 간의 분쟁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거기에 무슨 개입을 하거나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체적으로 잘 해결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거기에 제삼자가 개입이 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언론들이 경쟁력에서 이겨야만 국제적인 언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세계적인 언론으로서 발돋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라든가 정부의 그것에 관한 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원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께서 전문인이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잘 유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선 위원 아까 복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복지 이슈가 선택적 복지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분들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의 국민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상시리즈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노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만나 본 여러 분들의 얘기로는 잘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지만 소외된 계층, 저소득층은 정부가 지원을 해 줘야만 발돋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양극화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무상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임장관님이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소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택적 복지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시는 말씀은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재정의 문제이지 앞으로 이것이 꼭 선택적 복지만이 최선이다 하는 생각은 저는 조금 다릅니다. 보편적 복지도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먼 장래가 되겠지만 지향해야 될 목표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재정규모라든가 형편 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 빈곤층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선택적 복지가 우선적으로 우리 정부 정책이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선 위원 장기 플랜으로는 말씀하시는 데 동의를 하지만 지금 국민들의 양극화 현상에서는 선택적 복지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이정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역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위원장대리 이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和洙 委員 이화수 위원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부입법으로 추진된 법안 통과율이 75.4%로 이전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 잘 아시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李和洙 委員 김영삼 정부가 97.8%, 김대중 정부 94.6%, 노무현 정부가 81.8% 이것을 보면 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때 국회와의 대화가 부족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과거의 수치상으로 보면 지금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 정부가 제안한 법이고 국회에 낸 법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게 통과가 되거나 처리가 돼야지 된다는 이것은 사실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통 부족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국회와의 협의라든가 또는 협조를 받아 가지고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점에서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특임장관실이 2009년도에 발족된 이래로 중점 법안이라는 것은 정부의 중점 법안 처리라는 제도가 생겨 가지고 중점 법안 처리율은 상

당히 높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특임장관실이 생기기 전에는 중점 법안 처리라는 게 불과 16.9%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11년의 경우 70%까지 됐습니다. 60.6%……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보다 부단한 노력과 소통 원활화를 기해 가지고 더 처리율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李和洙 委員 그러니까 특임장관실이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별 정책사업 또는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에 있어 국민 여론, 지역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한 복안을 갖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그것은 그때그때 현안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한번 국민 여론의 소재를 파악한다거나 또는 필요한 그룹들 또는 사람들을 직접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민의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그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본 위원은 특임장관이 각종 문제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특임장관실 인력 구조 문제를 보면 원로 정치인들께서 예전 정무장관은 야당 심부름을 하던 사람이다 이런 표현까지 써 가며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당 업무 담당하는 인원은 과장 포함해서 4명 또 야당 업무는 과장 포함 3명, 시민사회팀은 시민사회업무 팀장 포함해서 5명,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인원 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지 말씀 좀 해 보시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아까 오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정식 임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구를 늘린다든가 인원을 늘린다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은 좀 이른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 전임자들 때부터 그러한 구상들이 되어 오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야당과 여당을 동등하게 별도의 조정관이 맡아 가지고 그 직원을 데리고 일을 하도록 한다거나, 지금은 한 조정관이 둘을 다 한꺼번에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문제, 그것은 그만큼 야당에 대한 비중을 둔다는 것이고 사회단체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둔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업무가 조정이 되고 기구가 다시 재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李和洙 委員 현재 정무 환경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다단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여야 정당이나 국회, 시민, 지역 등 대국민 소통을 하는 데 분명……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규 예.

○李和洙 委員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이 갈등을 해소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아 주셔야 되는데 이제까지 해 오신 것 보면 잘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후보자께서는……

스스로 한번 평가 좀 해 보시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격려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이윤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윤석 위원 전라남도 무안군신안군 출신 이윤석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자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잘 통과되시면 좋은 일을 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석 위원 그런데 특임장관이라는 자리가 어떤 정치적인 중요한 문제를 조율을 하고 정치적인 역량을 대단히 발휘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문방위원장님을 역임하셨지요? 문방위원장, 국회 상임위원장을 하셨잖아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이윤석 위원 그때 당시에 여야 간에 상임위의 어떤 충돌이 있을 때 후보자께서는 우황청심환을 그때그때 드시면서 간이 떨린다고 그런 표현을 하신 적도 있었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우황청심환을 먹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윤석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후보자가 이제 짊어지고 가실 때 굉장히 힘이 들고 무겁다,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청와대에는 이명박 한나라당, 여의도에는 박근혜 새누리당, 이 두 정당이 지금 커다란 권력투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만 해도 이렇게 복잡한데 또 다른 강력한 야당들이 지금 대두돼 있는 상태에서 후보자가 이 일을 잘 소통하고 조율하고 정치적인 커다란 영향력을 해 낼 수 있겠는가, 그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저로서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기대만큼은 거두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각오로 일을 하겠습니다.

○이윤석 위원 아무튼 그렇다면 지금 이명박 정부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가장 저희들이 지금 잘못됐다고, 국민들이 우리의 주권을 다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굴욕적인 외교들의 현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특히 FTA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쳐 가고 재협상하고 다시 폐기까지도 논의되고 있는데 그런 걸 강력하게 국무총리, 대통령, 국회 여야를 다니면서 후보자가 조율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제가 FTA를 다시 폐기하거나 수정하거나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야당이 지금 강력하게 제기해서 하나의 현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토라든가 신중한 접근 이것은 제가 특임장관으로서 할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윤석 위원 후보자님, 좋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은 국민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그렇습니다.

○이윤석 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쇠고기 협상, 한미 쇠고기……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고, 그때 논란을 보완하고자 그렇다면 앞으로 외국산 쇠고기를 수입을 할 때는, 특히 광우병 발병의 전력이 있는 지역에서 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할 때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 지금 구하지 않고, 국민의 동의라는 건 국회의 동의까지 연결되는데 밀어붙여서 1월 2일 한국과 캐나다의 쇠고기 협상을…… 이제 이 쇠고기가 15일경이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한국에. 이런 것 잘못된 것에 대한 국민의 어떤 뜻을 받들지 않는 지도자들의 결정이라면 다시 되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위원님으로부터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 보고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라는 게 어둡고 그늘진 곳도 바라보는데 우리 농민의 숫자가 많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쇠고기를 수입해서, 송아지 한 마리에 만 원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들어는 봤습니다.

○이윤석 위원 동네 강아지가, 돌아다니는 강아지가 3만 원에서 5만 원 합니다.

이런 정책을 펼쳐 놓고, 이런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을 해 놓고 지금 나 몰라라 한단 말이에요. 외환정책의 실패, 그리고 무분별한 쇠고기의 수입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우 값이 폭락을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이 전혀 지워지지 아니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국민의 동의를 구하겠다는 어떤 법률적인 기본을 무시하고 새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특임장관이 대통령께, 국무총리께, 국무위원들께 '우리가 해도 너무 한다, 이것은 다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바로잡자' 이런 건의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어떤 담대한 정치적인 결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되지 않나 이 말이에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신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잘 알겠습니다.

○이윤석 위원 그래서 특임장관 자리가 그런 자리인데 지금 현재, 오늘 도하 신문에도 이번 총선, 대선, 정권이 주고받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할 때의 중요한 현안이 FTA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다 짓밟고 여러 분야에서 소외되고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김

종훈 통상본부장이 해 놓은 굴욕적인 협상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하고 다시 재협상하고 거르고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그러한 결정을 1년 안에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실 적임자가, 이 일의 책임자가 특임장관이라 그 말이에요.

일을 완벽하게 해 내실 수 있겠는가 그걸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방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석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위원장대리 이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세 분이 들어왔습니다. 홍영표 위원님, 강기갑 위원님, 김재윤 위원님, 이 세 분이 들어오셨는데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세 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홍영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홍영표 위원 인천 부평을 출신 민주통합당 홍영표 위원입니다.

저는 특임장관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갖 대통령 측근 비리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신문지상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아니, 신문지상이 아니고 지금 이게, 오늘도 몇 번 나왔습니다마는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 대통령께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발언을 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입니까?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마는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대통령 주변의 측근이나 친인척이나 비리가 이렇게 많은가, 솔직히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거 한 10분의 1밖에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우선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과거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정적 죽이기 차원에서 검찰을 동원해서 정말 못 할 짓을 많이 했지요.

그렇게 하고 대표적으로 한명숙 대표라든지 참여정부 인사에 대해서 엄청난, 검찰 수사를 통해서 탄압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검찰을 이렇게 권력의 하수인으로 완벽하게 장악을 했지요. 완벽히 장악하다 보니까 측근이나 친인척들이 아주 오만해졌어요. 우리는 어떤 도둑질을 해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검찰이 봐줄 것이니까.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온갖 측근 비리가 이제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껏 해 먹어도 권력기관에서, 사정기관에서 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감히 지난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 때도 권력형 비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규모로 해서 이렇게 도둑질해 먹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완전히 구조적으로 썩은 정권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판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갖다놓는 이 오만함, 지난번 법무부장관이 법사위에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나 이런 것 제가 그때 말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군사정권 때 법무부장관도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오만하고…… 지난번에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 특히 돈 봉투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특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특검을 만들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특검을 만든 것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 검찰이 수사를 잘못하고 은폐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또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이걸 재수사하라고 특검 만든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이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죄송한 마음이 없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선 나라가 무슨 후진국처럼 이렇게 부패가 만연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이런 측근 비리나 친인척 권력형 게이트에 대해서 제대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법무부장관 이런 사람부터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임장관께서는 좀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대통령께 좀 직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노동부장관이라는 사람이 '한국노총이 민주통합당에 참여한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출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저 사람들 얼마 안 가서 팽 당할 것이다', 이것 공직자가 명백한 선거 개입 아닙니까? 불법 선거운동 아니에요? 아니, 한나라당에서는 지난번에 정책연합 해서 국회의원도 다섯 명이나 탄생시키고 그랬던 전력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이렇게 오늘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이 이렇게 언론에다 대고 떠드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즉각 경질하라고 이렇게 좀 직언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제가 상황 파악을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이채필 노동부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처음 알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지금 무슨 특정 각료를 사표를 받도록 하시라든가 이렇게 말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정식 임명을 받아 오고 상황 파악이 되면 그때 적절한 조치나 진언이나 건의나 이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기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갑 위원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파트 문제, 제가 국토해양부 실거래 사이트 다 통해 가지고 30평 아파트 거래내역 봤더니 2006년 9월에 30평 아파트 1층도 8억 원, 9층도 8억 원, 같은 평수 4층 아파트도 8억 1000만 원, 11층도 8억 3000만 원, 차이가 없었고요. 또 낮은 층수가 더 높은 가격에 매매된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시세를 차이 나게도 했지만 보니까 장남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 부담부증여를 하셨는데 보증금이 3억에 대출금 2억 3000만 원을 포함해 가지고 5억 3000만 원 해 가지고 부채를 포함해서 증여를 하셨더구먼요. 이게 부담부증여입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맞습니다.

○강기갑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되면 2억 2400만 원을 증여세를 냈지만 이게 단순증여를 하게 되면 2억 7000, 한 5000만 원을 더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이 5000만 원을 면제받았더구먼요. 그래서 제가 그 사유를 죽 보니까 당시 후보자가 낸 양도소득세는 1억 원이 채 안 되는데 후보자가 당시에 가지고 있던 현금과 예금 합이 1억 9700만 원이고 증권이 2억 5000만 원이 있었어요. 굳이 빚을 내 가면서 아들에게 증여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5억 원이 넘는 자금이 있었고 거기에 또 전세보증금도 1억 가량이 자제분에게는 있었고 아파트 근저당도 없는 깨끗한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5억 부담부증여를 한 것은 일반증여를 하는 것보다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이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무튼 이 사안은 제가 주고받고 하기에는 시간 5분이 너무 황금 같은 시간이 돼 가지고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지금 서민들이 제일 어려운 게 물가고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알고 있습니다.

○강기갑 위원 그런데 재벌 중심 정책을 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갔다는 데 동의 지금 못 하시겠지요?

또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4대강에 22조 풀었지요, 91조 원 감세, 뭐 91조까지는 안 됐지만 이걸 함으로 해서 시중의 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고환율 정책 쓴다고 달러 사 들이려니까 외평기금 늘려 가지고 시중에 돈이 풀렸어요. 2008년도 본원통화가 제가 보니까 49조 원이었는데 이게 2010년도 80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구제금융 제공하고 장기간 저금리 정책 펴고 시중에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도 다 사들였지요, 부동산 투기 부양책도 썼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원통화량이 4년 사이에 68%가 뛰었고 결국은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맞습니다.

○강기갑 위원 물가가 올라가는 것 중에 농산물이 제일 먼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저장성이 약한 물가 먼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런데 시중에 통화를 이리 풀어 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갖다가 '잔칫집에 죽는 것은 돼지뿐' 이라고 왜 농민들을 그렇게 때려잡느냐 이거예요. 농민 물가가 안 올라가면 다른 물가는 안 올라갑니까? 어차피 돈이 많이 풀려 가지고 이렇게…… 이 전부가 재벌 중심 정책 아닙니까. 고환율 정책, 2008년, 2009년 고환율 해 가지고 16대 재벌에게 124조 원 흑자를 안긴 거라는 말이에요. 강만수 장관이 원 없이 돈을 썼다고 그랬어요.

또 내 말이 올라가는데, 내가 차분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전부 재벌들 곳간 채우기 위해서 결국은 물가 올라가고 서민들 아우성 치고 하는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후보자께서는 여기에 대한 원인 분석도 제대로 못 하고 계시고 이것을 시정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특임장관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고 지금 이 양극화를 해소해야 됩니다.

철회시킬 것은 감세법안도 철회시켜야 돼요. 우리 가톨릭 신도회장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상생이 행복의 핵심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풍요롭고 편리하다고 행복합니까?

1분만……

○위원장대리 이명규 예, 마무리하시지요.

○강기갑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풍요롭고 편리하다고 돈만 벌면 행복합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양극화 심화되고 서민들이 '나 죽네' 하고 지방 경제는 난리가 났는데? 진정한 행복은 상생에 있는 거예요. 상생 정치, 상생 세상을 만들려고 그러면, 사랑이라는 그런 핵심의 신앙의 신도회장까지 하신 분이……

미디어법도 결국은 재벌에게 언론 지분을 늘려 가지고 맡기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돈이 있기 때문에 재벌들이 언론 이거 지분 소유 안 해도 자기 주장 다 하고 자기 논리 다 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마무리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지금 하신 말씀의 뜻을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이명박 정부가 결코 농민들을 등한시하거나 농민들의 권익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또 분명히 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기갑 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농민들이 지금 전국에서 또 분노합니다. 지금 농민들 민심을 한번 들어 보세요. 특임장관 임명되시면 그 현장을 한번 들어 보세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정부의 농촌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필요하다면 제가 건의를 드려서 임명을 받아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점이 지금 문제가 돼 있고 소통이 안 되고 있는지, 또 그 결과를 가지고 강 위원님한테 찾아뵙고 좋은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부담보 증권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는 이제까지 땅 한 평을 제가 산 적도 없고 무슨 아파트를 투기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거나 이런 일은 하나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 위원님이 증여한 문제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담부증여가 결코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부담부증여를 한 것은 제 아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증여를 받을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기 조그만 아파트가 있고 또 봉급도 국회의원인 저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아들이 증여를 받더라도 네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 부분을 부담하여야 된다는 그런 교육적인 차원도 있었고 또 다른 딸 둘도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아들한테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때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될지 제가 가늠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9900만 원, 약 1억을 내라니까 낸 거지. 그래서 당장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도 내야지 되겠고 해서 한 것이지 무슨 제가 절세를 위한다거나 또는 다른 꼼수를 부려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윤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특임장관후보자님!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서 우리 특임장관후보님께서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대통령께서는 야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미 FTA 발효 절차 중단 그리고 재협상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걸 가지고 '독재시대도 아니고 외국 대사관 앞에 찾아가 문서를 전달한 것은 국격을 매우 떨어뜨린 일이다'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아니, 야당이 99%의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한미 FTA 협상 체결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게 국격을 떨어뜨린 일입니까? 아니면 99%의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벼랑으로 내모는 이런 한미 FTA 협정을 체결한 대통령이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한미 FTA 협정을 체결한 대통령이 국격을 떨어뜨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도 모자라서 한중 FTA를 체결하겠다고 합니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농민 어민 축산인, 1차 산업 종사자 분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됩니다.

이러한 생존권을 위협받는 한중 FTA 체결 추진을 중단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한중 FTA를 할 때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수산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밖에 중국이라는 엄청난 시장에 대한 우리의 공산품 수출이라든가 다른 분야에서는 또 저희한테 상당히 유리한 점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무조건 한중 FTA를 중단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저희가 현 단계에서는 얘기하기가 좀 적절치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한중 FTA는 무조건 좋은 것이고, 그것을 체결해야만 반드시 경제발전이 되고 성장동력이 계속 유지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음지 쪽과 양지 쪽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FTA를 체결하게 되면.

그래서 그러한, 지금 우리가 한미 FTA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농촌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을 했습니까?

우리 최인기 농수산위원장이 민주당, 통합민주당 출신 아니십니까? 또 전남 곡창지대의 의원이신데 거의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재윤 위원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요. 그러한 장치라도 안 하면 우리 농민들 다 벼랑으로 몰려서 떨어질까 봐 그렇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협상을 했던 겁니다. 그 협상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때 최인기 위원장하고 협상한 안이라도 지키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알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리고 대통령께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미 FTA 발효절차 중단하라, 재협상하라 촉구하는 서한 전달한 것 가지고 야당을 향해서 국격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우리 99%의 국민들을 벼랑으로 내몬 대통령이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대통령께서 국격을 떨어뜨리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흥길 장관후보자께서는 제주 고 씨여서 제주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질 것이라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 문제가 제주해군기지 문제입니다. 제주해군기지로 인해서 도민사회의 갈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임장관이 되시면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뛰시겠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제가 들어와 가지고 내정되어서 얘기를 들었더니 이미 특임 전임자가 현장에 방문을 했고, 또 저희 직원도 네 차례나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김 위원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제주도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중앙정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직접 한번 방문도 해 보고, 어떤 민의의 소재, 또 해결의 실마리 이런 것을 풀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재윤 위원 국회는 작년 말 국방부가 신청한 올해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1327억 원 중 96%를 삭감해서 49억만 남겼습니다. 그만큼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문제점을 국회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군 복합항으로 건설한다는 계획과

달리 설계가 잘못돼서 이제 국무총리실에 검증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증이 끝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해군기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역시 특임장관은 이런 국가의 중요한 문제들의 갈등을 푸는 게 특임장관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재오 장관께서도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우리 고흥길 특임장관님께서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와 또 종교계의 의견을 들어서 이 문제를 푸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그것은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한 번 아니라 두 번 세 번이라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표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김진표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명규 예, 질의하십시오.

○김진표 위원 종편 문제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문방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법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 종편인데 그 당시 후보자가 종편이 도입되어야 한다라는 논리로 가장 앞세우신 것이 여론의 다양성 증대였나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그것도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분명히.

○김진표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은 우리 언론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도외시하고 아전인수 격으로 주장한 것이다, 지금 종편이 등장을 해서 몇 달 안 됐지만 지금 나타난 상황을 보면 소위 편파보도, 언론의 보도 편향 이것이 더 가중됐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 신문과 방송을 나눠서 보면요, 신문은 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었지요. 그런데 방송은 방송의 인가권이 정부에 있으니까 신문보다는 아무래도 정부로부터 간섭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이 신문이 정부로부터는 독립적이었는데 신문시장이 세 거대 보수신문에 의해서 사실상 같은 논조로 독점되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하고 방송의 경영이, 거대 신문이 방송을 같이 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보도 뉴스에 있어서나 해설에 있어서 보도의 편향이 일어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후보께서 주장했던 여론의 다양성과는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느낌이 어떠십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일면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와 조금 다릅니다.

여론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공중파 3사가 있을 때 사실상 방송 뉴스가 영향을 미치는 게 7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편이 뉴스 방송을 죽 하면서 지상파 3사가 미치는 그 영향이라는 게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벌써 여론의 다양성이 반영이 된 거고요.

신문과 방송이 결합이 됨으로 인해서 일방적인 편파적인 보도가 나간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러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가 경영하고 있는 JTBC, 조선일보가 경영하고 있는 TV조선, 또 동아일보가 하는 채널A 뉴스, 이런 3개 방송이 신문의 영향, 그 편집이라든가 또는 거기에서 취재된 내용을 가공하고 더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결국은 과거 인쇄매체가 갖던 영향력을 조금 더 확대한 것이고, 그 확대한 것이 여론의 다양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절대로 마이너스가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겁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종편이 시작된 이후 종편의 경영이, 시청률이 기대보다 훨씬 못 미치게 0.3%대로 나오다 보니까 인쇄매체, 신문들이 앞 다투어서 자사가 경영하는 방송의 뉴스나 해설 이런 것까지도 함께 소개하고 하는 것으로 지면을 채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도의 편향성을 더 가중시킨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종래 방송은 미디어렙법하고도 연결이 됩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방송 뉴스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도가 높았던 것은 방송은 지상파 세 방송이 팩트 위주의 보도를 주로 했고, 광고주의 압박으로부터는 자유로웠거든요, 미디어렙법 때문에.

그래서 보도 편성 기획과 광고 판매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었다는 말이지요, KOBACO 체제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종편에 특혜를 주는 미디어렙법에 의해서 종편방송사들은 자유롭게 광고도 수탁하고 또 보도 편향이 일어나다 보면 이게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이거지요. 방송 뉴스 보도의 신뢰성이 크게 저하된다, 광고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지금 하신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미디어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그러한 뉴스 방송이 경영상의 압박에 의해서, 광고주의 압력을 받아서 뉴스 방향이라든가 편향된 보도를 한다 할 때 그게 시청자들한테 용납이 되겠습니까?

당분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길게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한 뉴스는 이제 독자들이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초창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가 또는 소위 말해서 일종의 부정적인 이러한 현상이지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종편의 뉴스는 편향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오히려 더 편향된 보도만 할 거다 하는 것은 기우라고 말씀드리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지나친 우려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특임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저는 선거를 공정하게 치러서 정권 이양을 원만하게, 합법하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한 책무고 그 과정에 있어서 후보자의 경험을 살려서 중시해야 할 것은 언론의 공정보도를 확립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방금 후보자의 예측이나 말씀대로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모든 국민들의 비판적인 현상이나 이명박, 새누리당의 정책에 대한 비판도 결국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SNS라고 하는 새로운 미디어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우리 야당이 이것은 언론악법이라고 종편에게 방송 허가권을 주는 것을 반대했고 미디어렙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이명박 정권이나 새누리당이 정권을 연장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송·신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반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현명해서 저는 말씀대로 종편의 시청률 지금 영점몇 %대로 낮아지고 있고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SNS보다 훨씬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억지로 되돌리려고 한다든지, 하여간 국민들을 믿고 국민들의 성숙한 판단을 믿고 모든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홍보정책을 써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뭘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일은 언론에 오래 봉직한 후보로서 정부 내에서 좀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지요.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말씀 잘 알아듣고 앞으로 신중하게 언론정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현 복잡한 미디어구조 속에서 정부가 무슨 언론을 조작하고 정권을 연장하고 이런 것은 사실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문제로 생각하고요.

지금 종편이 출범한 지 벌써 두 달이 다가옵니다마는 아직도 1%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청률이.

그러나 이런 것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연히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보고, 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콘텐츠의 개발인데 아직도 콘텐츠 개발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보시면 좋은 결과가,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방송계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걱정을 하고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의논도 드리고 일을 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김재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다니까 마지막으로 질의 기회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제주해군기지의 문제는 제주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해군기지 문제로 인한 갈등이 매

우 심각합니다.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도 채 안 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반대운동으로 인해서 체포된 사람만 하더라도 200명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제주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이고 국제사회의 문제까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흥길 후보자님께서 특임장관이 되신다면 직접 현장도 방문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특임장관실에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그것은 또 별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저희 특임장관실에 제주도 문제만을 연구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것은 사실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런데 워낙 이 문제가……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문제의 심각성을 제가……

○김재윤 위원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심각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은 인정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그러나 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부에 정식으로 들어가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도 해 보고 그 연후에 제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김재윤 위원 이재오 특임장관 계실 때도 TF팀 구성을 검토했었거든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예, 하여간 여러 가지, 그 방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다음에 이명박 정권 4년의 성적표를 제가 보면서, 특임장관으로서 대통령께 잘 전달하셔 가지고 마지막 임기 동안이라도 우리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민경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소비자물가 상승률, 1위입니다, 21개 국가 중에서. 기름값, 17% 인상됐습니다. 통신비, 10% 인상됐습니다. 사교육비, 4% 증가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국공립대 2.1% 인상, 사립대 4% 인상됐습니다.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 9.7%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공약하시기에는 서민 주요 생활비를 30%를 절감하겠다고 하셨어요. 에너지비 10% 인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통신비 20% 인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교육비 절반 이상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등록금 반값 인하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약이 이렇게도 안 지켜질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보면, 빈부격차 볼까요?

소득 5분위 배율, 악화됐습니다. 상대적 빈곤율, 악화됐습니다. 노동소득분배율, 2004년 이래로 최저입니다. 실제적 임금상승률, 27개국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그에 비해 부채는 어떤지 보시겠습니까?

국가채무,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300조 원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무려 423조원입니다. 124조 원 증가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우리 열린우리당 정부, 이 국가채무 때문에 얼마나 물고 늘어졌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무려 41.5%나 증가시켰어요.

지방채무, 무려 9조 2000억 원 증가됐습니다.

공약은 지방재정 확충해 주겠다고 화려한 장밋빛 공약을 내셨는데 결국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가계부채, 무려 33% 증가했습니다, 4년 동안에. 631조 원이 841조 원, 210조나 증가했습니다.

결국은 국가채무 늘어, 개인채무 늘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자리 볼까요? 대통령께서 연간 60만 개씩 300만 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업률 그리고 고용률, 청년실업률, 그러니까 실업률은 늘어나고 고용률은 줄어들었습니다. 일자리 81만 개밖에 창출 못 했습니다. 300만 개에서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청년고용률 오히려 1.2% 하락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은 독식하고 중소기업은 몰락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10대 재벌의 계열사 수는 203개나 늘어났습니다. 대기업 자산 총액은 72.6% 증가했습니다. 대기업 당기순이익은 무려 73.3%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우리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은 절망의, 고통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제대로 대책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IT 경쟁력 지수는 무려 3위에서 16위로 하락했습니다. 이게 MB 정부 4년의 평가입니다.

특임장관이 되신다면 잔여임기라도 특임장관께서 이명박 대통령 잘 보필하셔 가지고 우리 국민들 편안한 삶 그리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잘 알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해군기지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우리 해군기지 문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특임장관 멋지게 잘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이 인사위원회는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경력, 소신, 철학 등에 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후보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국정에 관한 질의를 하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정책위 의장을 하셨기 때문에요.

○위원장대리 이명규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특임장관후보자에게 질의가 없으면 국무위원후보자(특임장관 고흥길)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특임장관후보자로부터 최종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나가서……

○위원장대리 이명규 예.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 오늘 하루 종일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충고에 대해서는 가슴 깊이 새겨서 제가 앞으로 장관에 임명이 된다면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우리 이명규 위원장대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시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특임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주신 미션은 정말 참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도 제가 감안을 해서 일을 더욱 욕심을 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타 부처의 일까지 오버액션이 되는 일은 없도록 신중하게 그늘에서, 음지에서 조용히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따듯한 충고와 질책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명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특임장관후보자 고흥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특임장관후보자 및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임장관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열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 위원(21인)

강 기 갑	김 광 림	김 낙 성	김 세 연
김 재 윤	김 진 표	노 영 민	박 영 아
박 우 순	안 규 백	유 일 호	유 재 중
이 두 아	이 명 규	이 상 권	이 윤 석
이 정 선	이 화 수	홍 영 표	황 영 철
황 우 여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 석 전 문 위 원	최	민	수
입 법 심 의 관	이	계	인

○출석 공직후보자

고 흥 길

【보고사항】

○의안 회부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2. 2. 7 박선영・곽정숙・권선택・김낙성・김동성・김소남・김영선・김옥이・김용구・김춘진・신낙균・원혜영・정몽준・최경희 의원 발의)

2월 8일 회부됨